

갱신과 부흥 Reform & Revival

표지그림 : 제네바시 전경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2009 Vol.4

05 권두언

- 교회 개혁의 과제 ④ : “오직 믿음으로”

이환봉

10 개혁교회 강단

- 하나님과의 화목 (에베소서 2:18)
- 율법사의 질문 (누가복음 10:25~29)

존 칼빈

박윤선

24 개혁신학 산책

- 교회개혁과 교회성장
- 개혁주의 교회 개혁론
- 마틴 부씨의 생애 (II)
- 칼빈과 성령의 인치심 (II)

최정철

이신철

마틴 그레샷트

빌름 판 스파이커

71 개혁신앙칼럼

- 그리스도인과 대학

김성수

84 서평

- 오토 베버, 칼빈의 교회관
- 빔 얀스, Albrecht Hardenberg als Theologe
- 리처드 윈터, 지친 완벽주의를 위하여

김진영

황대우

유명복

106 학술원소식

편집부

갱신과 부흥 • 2009년 9월 22일 발행 • 통권 4호

엮은이 이환봉 이신철 • 펴낸이 김성수 • 펴낸곳 교신대학교출판부 •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149-1
전화 051_990_2266 • 팩스 051_911_2526 • 이메일 kirs@kosin.ac.kr • 편집인쇄 JCOM 051_245_7623

ISSN 2005-4211

값 3,000원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권두언 Preface

이환봉 | 교회 개혁 과제 ④ “오직 믿음으로”

개혁교회 강단 The Reformed Pulpit

존 칼빈(John Calvin) | 하나님과의 화목(에베소서 2:18)

박윤선 | 율법사의 질문(누가복음 10:25~26)



칼빈이 설교한 강대상



개혁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 est)

“오직 믿음으로” (sola Fide)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교는 칭의가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 뿐 아니라 인간의 협력에 의한 점진적 성화의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에게 칭의와 성화는 실질적으로 동일시되었다. 그들은 성경 원문의 헬라어 “의롭게 하다”(dikaiōō, 롬3:28)를 법정적 의미를 지닌 “의롭다고 선언하다”로 번역하지 않고 자신들의 불가타 라틴어 성경에서 “의롭게 만들다”(justificare)로 잘못 번역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칭의를 단번에 이루어지는 법정에서의 선언적 행위가 아니라, 인간 편의 선한 행위와 성화의 노력에 의해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즉 인간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1521년 독일어 신약성경을 번역하였을 때, 로마서 3:28을 사도 바울의 일관된 주장을 따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번역하였다. 루터는 인간의 모든 계략과 지옥의 문에 대항하여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칭의”(justification)의 신조는 “우리가 행위 없이도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고 선언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믿음이 그 적절한 직무를 수행할 때,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도 바라보지 아니한다. 믿음은 이같이 말하지 아니한다. 즉 내가 무엇을 행하였는가? 내가 어떤 죄를 범하였는가?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웠는가? 믿음은 오히려 이렇게 말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리스도께서 무슨 공로를 세우셨는가?” 이는 우리의 구원적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 후 1530년 6월 25일 루터의 추종자 멜랑흐톤이 작성한 아우그스부르크 신앙고백서(Augsburg Confession)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공로와 행위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칭의의 교리(Article IV: Of Justification)가 구체적으로 고백되었다. 칼빈 역시 칭의론에서 “의의 전가”를 주장하면서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 값없는 의를 얻는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오시안더(Osiander)가 “dikaioō”를 “의롭게 만들다”로 설명한 것을 비판하였다.

개혁자들이 이해한 칭의는 개인의 영적 도덕적 진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을 옷 입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전가(imputation, 전달되어 소유됨)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실제로 의롭게 되기 이전에, 그리고 아직 완전한 성화

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수단으로 단번에 자신의 의를 우리의 의로 선언하시고 인정하셨다는 것이다.

물론 오직 믿음은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칭의의 수단이다. 칭의의 근거는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이며, 믿음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적 은혜의 선물(엡2:8-10, 빌1:29)이기에 인간의 믿음이 칭의를 받을 수 있는 근거와 공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의 원리를 통해 율법폐기론자들처럼 행위는 모두 필요 없다거나 행위는 아무렇게 해도 좋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인간의 선행과 성화의 노력이 구원(칭의)의 근거와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려고 한 것이다. 선행과 성화는 칭의의 열매와 표시이지 결코 구원의 전제와 수단이 아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의 실질적 원리로 불리는 “오직 믿음으로”의 원리는 구원적 신앙의 조건(수단)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성령의 선물인 신앙은 신학의 내적원리로서 외적원리인 말씀과 더불어 개혁신학을 말씀과 성령 즉 주객관의 균형을 가진 신학으로 만들어 준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도덕주의와 율법주의에로의 회귀를 막아주는 원리이기도 하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과 복음주의자들이 “로마 카톨릭과 복음주의 연대”(Roman Catholics and Evangelical Together, 1994년 3월 29일)라는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에 동의한다”고 함께 선언하였다. 이 성명서에 빌리 그레이엄(Billy Graham), 팩커(J. I. Packer), 빌 브라이트(Bill Bright) 등의 우수한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서명하였다. 그러나 유의해야할 점은 “오직”(Sola)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있다는 사실이다. 로마 카톨

릭은 트랜트 종교회의(1547년)가 결정한 바대로 “만약 누군가 칭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다른 협력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한 죄인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 그에게는 저주가 있을 지어다”라는 교리적 선언을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오늘날 로마교는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의 교리에 동의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례준수와 선한 행위가 구원(칭의)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추가되어 있는 한에서의 동의를 말한다. 그들이 말하는 칭의는 그리스도의 공로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통해 주어진 성령 하나님의 주입된 의를 사용하여 스스로 자신을 더욱 의롭게 만들어 주고 자신의 죄를 갚을 수 있는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인간 죄인의 공로가 협력할 때에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신인협력에 의한 구원의 교리를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루터교 세계연맹(1999년)과 서울 감리교 세계대회(2006년)를 통해서 자신들의 칭의 교리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제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의 “마지노 라인”(최후 방어선)과도 같은 개혁주의(칼빈주의)를 주적(main enemy)으로 규정하고 특히 오직 믿음을 강조하는 칼빈주의 구원에 대한 5대 교리를 웹사이트 등을 통해 집중 공격할 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와의 연대를 통한 협공에 진력하고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의 교리를 참된 복음의 핵심적인 본질로 생각하여 “교회가 일어서고 또는 넘어지는 신앙조항”(articulus cadentis et stantis ecclesiae)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이신칭의의 교리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자는 사실상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재확인한다. 칭의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믿는다. 칭의가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 어떤 인간적 공로에나 우리 안에 주입된 그리스도의 의와 그 어떤 인간적 제도와 의식에 근거한다는 것을 단호히 부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납 받을 수 있다는 그 어떤 근거(종교적 헌신과 윤리적 삶)도 부정한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가 스스로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다시 읽는 칼빈의 설교 4

하나님과의 화목

(에베소서 2:18)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바울은, 복음의 선포에 대해 말한 후에
의도적으로 ‘한 성령 안에서’ (2:18)라고 덧붙입니다. 앞에서
그는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한 바 있
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또한 바로 그런 방법으로써
아담 안에 있던 저주를 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복
음이 그 분께로 가는 길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안에서 이런 일
을 행하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것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성령 안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
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복음이 선포될지라도, 여전히 완고한 사람들과 세
상적인 것들로 포장이 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천국
의 삶에 관해서 개나 돼지들보다도 더 생각하려 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방 열국들이, 너희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화롭게 할지어다”
(사 24:15)

위선에 너무 깊이 빠져 들어 갔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께로 부드럽게 이끌어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아주 적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성적으로 우리는 변화되기 쉽고 자기 자신의 의견을 지니기를 고집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순간마다 변덕을 부리며, 일심(一心)으로 남아 있는 일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 중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붙들고 그 분을 통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5:20에서 말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권고하실 때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서 가야한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간적 능력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촉구하면서 그분께로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만약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께로 갈 방법이 없으며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진하기보다는 후퇴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감동시키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로 갈 방법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로마서 8:15에서 말씀되고 있으며, 우리는 갈라디아서 4:6을 통해서도 이것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버림 받은 자들 사이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양자의 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 분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오직 연약함만이 존재하며,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도 큰 경솔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진리를 인식시켜 주시고 우리를 내적으로 교화시켜 주시므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당신 자신이심을 알려 주신다면, 그때 우리는 자유롭게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 중의 아무도 자기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천박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은 우리에게 낙원의 문을 열어 주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이유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편지를 통하여,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벧전 1:2). 그리고 히브리서를 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바쳐 지셨다고 말하는데(히 9:14),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의 값을 치르기 위해 바치신 희생은, 만약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공허한 것이 되었으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앞서 언급된 그 문제를 계속해 나가면서, 멀리 있던 자들과 가까이 있던 자들 모두가 선포된 메시지를 들었으며, 그와 꼭 같은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이 그것을 더욱 더 확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덧붙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까이 있던 자들’이라는 바울의 표현은 유대인들, 즉 앞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던 자들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들을 율법의 수호자들로 받아들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들을 하나님과 완벽하게 연시시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들에게 마음의 공포와 고뇌만을 안겨 주었고, 또한 바울이 로마서 3장(9절과 23절)과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7절) 유대인들, 즉, 그들을

철저히 저주하고 지옥의 밑바닥까지 낮추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율법에 덧붙여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다른 거룩한 선지자들 그리고 구약시대에 살았던 그와 비슷한 모든 왕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드러난 복음을 소유하지 못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값없는 선하심으로, 그들이 믿는 구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은혜 가운데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만약 율법이 복음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 율법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때려눕히고, 그들 위에 번개를 내리고, 하나님의 엄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 주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는 것은 복음 안에서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로서는 그런 가르침에 참여자가 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 관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지고 있는 이중의 의무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삭(滿朔)이 되지 못해 난 자들과 같은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들과 연합시켜 주시고, 또한 당신이 미리 택하시고 양자로 삼으신 사람들의 무리 속에 넣어 주심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이방 열국 들어, 너희 하나님을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화롭게 할지어다”(사 24:15)라는 선지자들의 증거를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구절로써 성령께서는, 이미 말씀되었고 또한 우리가 이미 살펴보기도 했듯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

가 그들이 흩어져 있던 모든 곳으로부터 나와 한데 연합될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를 하나님 찬양의 멜로디가 있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 「존 칼빈 에베소서 설교 상」 김동현 역 (서울: 솔로몬, 1995) 322~326





율법사의 질문

(누가복음 10:25~29)



율법사라는 것은 당시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고, 또 모세의 율법을 행하려고 힘도 많이 쓰는 사람이겠죠. 본문은 그러한 율법사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당할 때 지혜롭게 대답하십니다. 대답에는 항상 지혜가 필요하고, 질문자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율법사의 질문 내용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며 영생 얻는 방법을 질문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답변은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 무엇을 행하라는 것일까요? 결국은 율법을 행하라는 것이죠.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고 한다면, 이는 바울이 전도 한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16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고 하였습니다. 믿으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 누가복음 10:25~29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저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의 덕과 공로와 의로 인해 우리가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체가 바로 내 구원을 이루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로 없이 빈손 들고 그 앞으로 나아가서 그의 공로와 의로 구원 받습니다. 그것을 받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신약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구원의 길과 영생을 얻는 길은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먼저 자각이 있어야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을 행할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배가 고프 줄 알아야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는 죄인이다' 라고 입술로만 말하는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속에서부터 죄인이다. 나에게는 의가 없다. 전혀 없다' 라는 절실한 깨달음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따끔하게 믿는 사람들이 누구 인줄 아십니까? 힘을 다해서 행해보려고 했던 루터야말로 순교의 삶을 세워 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신

양의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폭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루터는 자기부인과 거룩을 위해 제일 힘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일 것입니다. 그는 수도원에까지 들어가며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안됐습니다. 사람이 행해 보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됩니다. 힘써보는 사람만이 자기가 죄인인줄 깨닫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율법사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인요, 스스로 의롭다’ 하며 율법을 이론으로만 취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행하는 데 비례 되서 깨달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이 행할수록 더 깨닫습니다. 그 생명을 깨닫는 것은 순종해야 깨닫는 것입니다. 다음의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시험하기 위한 질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와 같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런 마음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 교만한 마음이 벌써 그 사람의 무식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어두움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도 멀어집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무디 선생은 말합니다. ‘진리는 내려가면서 배운다.’ 무디는 체험으로써 이 말을 말한 것입니다. 무디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려고 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려가면서 배운다.

그러나 본문에서 율법사는 유대사회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는 얼마나 아나 보자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28절에는 이 사람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라고 합니다. 이 율법사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곳곳이 내세울려고 하는 사람이

예요. 도대체 인생에 어찌 옳은 게 있습니까? 옳은 줄로 알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지입니다. 아직 몰라서 그래요. 거룩되게 살아서 성결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더 큰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바울선생도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주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혹은 너는 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먼저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마음의 자세는 그 자신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자세는 받을 마음이죠.

하지만 율법사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에게 ‘주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이른 것입니다. 그대신 예수님께서서는 행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힘써 행해 봐야 마음의 자세가 바로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써 행해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은 결단코 행위의 책임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완전케하려고 믿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이 책임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께서 힘과 믿음을 주어서 행하도록 하고, 또 행하지 못한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대신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행위의 원칙을 세워 나가는 것은, 결단코 행위의 원칙을 다 팽개치고 이제는 믿음의 새법을 세운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고 또 행하다 보면 ‘나는 죄인이구나’, ‘씩어도 이렇게 썩나’, ‘옳게 행한다고 했더니 거기도 잘못이 있구나’ 하고 자신의

교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행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성결을 본받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하였지만 여전히 제자리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가야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 몸에서 구원하랴’의 고백이 계속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에, 행해져야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영원토록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새로운 삶 일수 있구나 예수님이 붙들어 줬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지요. 행함과 믿음은 적어도 원리상으로는 일치란 말입니다. 물과 나무, 나무 뿌리와 나무 줄기의 관계와 같이 행위가 흔들리면 믿음이 살지를 못합니다. 행위에 따라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런고로 믿음과 행위는 호흡과 같습니다. 죽을 죄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진실한 회개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게 되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게다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누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게 하시니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회개와 믿음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율법을 강조할까요? 아직 죄의식도 없고 죄로 인해 고민이 없는 아이를 앞에 놓고 ‘너는 예수님의 피만 믿어라. 그러면 너희 죄를 사함받는다’ 라고 하면 아이가 납득을 할까요? 죄가 뭔지도 알지 못하고 죄에 대한 고민도 없으니 무엇을 이해하겠습니까? 이와같이 예수님은 교만한 율법사에게 ‘율법을 행해라. 구원 문에 들어가는 제 일보라’ 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에서 율법과 관련된 행위를 쪼개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행하는 것이 구원의 공로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원의 공로가 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이것은 절대로 필요합니다. 행위의 빛은 영원토록 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우리 믿음을 좀 더 정비하기 위해 난 죄인이라는 그 마음의 자세가 더 분명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행하라’는 말을 필요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네 눈이 만약 범죄하였으면 네 눈을 뽑아버려라’는 어떻게 해석 할겁니까? 해석이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허나 예수님의 말씀 같이 역시 이 말씀을 생각해서 해석을 바로하고 믿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의 무엇이 기록되어 있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란 질문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굉장한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해야 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마음을 순결하게 가지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대로 모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순결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한세상 살아 갈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제일로 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있다해도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생명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육신의 힘만이 아니라 모든 재산과 모든 것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뜻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이 말씀은 전부를 하나님께 집중해라는 말입

니다. 가정도 가지고 재산도 가지고 무엇이든 다 가질수 있지만은, 다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내가 그를 나만 못하게 생각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 자신을 다른 사람만큼 사랑하라는 이 원리에서 우리가 살아 가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남을 나보다도 높이고 남을 남만큼 높여 가는 일이 되어진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 희생함으로 내가 도움을 받습니다. 남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 줍니다. 또 남을 위해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육간에 윤택하게 해주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으니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남을 높여주고 남을 위해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나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돌아 볼 때에는 아무리 희생한다 해도 평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나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희생할 때 결국 내게 살이 붙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볼 때 내가 윤택해 진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했을까요? 제가 했을까요? 못했습

니다. 하루에 열두 번도 넘게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낮아지고 녹아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너는 나를 믿어라’ 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 있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지 못한 입장에서 책임감을 덜 가져서는 안됩니다. 책임감조차 시들하면 안됩니다. ‘뭐 그렇게 한 사람이 있나 뭐 나만 못했나?’ 하면서 책임감을 감소시키고 스스로를 위로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주의에 입각해서 ‘나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지옥에 밖에는 갈 데가 없는 처지야’ 라고 생각하며 언제나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높은 윤리라고 하기보다는 정당한 윤리입니다. 인간은 의뢰히 행해야 됩니다. 행했어야 되고,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순간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실상 바로 취급하면, 이 윤리를 바로 취급하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해야 된다’ 고 여겨야 합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 라고 합니다. 이 율법사는 아직도 그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녹아지지 않았습시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하고 그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주일날 공과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학 산책 Walking with Reformed Theology

최정철 | 교회개혁과 교회성장

이신철 | 개혁주의 교회 개혁론

마틴 그레샷트 | 마틴 부서 (II)

빌름 판스파이커 | 칼빈과 성령의 인치심 (II)



칼빈이 설교한 강대상



교회개혁과 교회성장

- 모든민족교회에 대한 사례분석 -

I. 서론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폭발적으로 부흥했다. 오늘날 많은 교회 개혁자들이 그때의 부흥을 재현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목회자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혁교회들이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모든민족교회도 교회의 영적, 수적부흥을 위해 많은 몸부림을 해왔다. 크고 작은 시행착오도 있었다. 그 와중에서 작은 부흥을 맛보기도 했다. 그런데 모든민족교회가 지금의 성장을 이룬 것은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 지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민족교회에 은혜 베푸셨던 이유들을 찾아 나누고자 한다.

II. 본문

1. 모든민족교회 역사와 현황

1.1. 모든민족교회의 역사

모든민족교회는 1982년 26명의 성도들이 김해남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교회를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1985년 김해시 봉황동에 대지 175평을 매입하여 조립식 교회당을 건축하여 입당하였고, 1991년에는 김해시 내동에 대지 320평을 임대하여 조립식 교회당을 건축하였다. 1996년까지 3명의 담임목회자가 바뀌었다.

그리고 1997년 4월 필자가 부임하였다. 당시 주일 예배 출석 성도는 약 250명이었다. 이후 교회는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2009년 현재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가 어린이를 포함해 약 3000명에 이른다. 1999년 모든민족교회로 교회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0년에는 김해시 내동의 현재 위치에 1500석 규모의 본당을 갖춘 교회당을 건축하여 입당하였다.

1.2. 모든민족교회의 수적 성장

필자가 부임한 후 모든민족교회는 적게나마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다. 부임 직후 약 250명이던 성도의 수가 2009년 8월 현재 주일오전예배 참석하는 장년성도 1600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한해평균 100명이 넘는 예배 참석 성도의 증가를 의미한다.

연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출석명	250	311	365	402	490	544	610	707	826	978	1212	1425	1610

도표1. 연도별 주일오전예배 장년 참석 성도 수

2. 모든민족교회의 성장요인

모든민족교회가 현재와 같은 꾸준한 성장을 이룬 것은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의 기초를 확실히 다졌기 때문이다. 필자는 부임초기부터 예배, 기도, 훈련, 전도, 교제의 조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런 조화를 바탕으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였고 그것이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만약 이 5가지 중 한 가지라도 미흡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을 것이다.

2.1.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

모든민족교회는 성도들에게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이다(명성훈, 『교회 개혁의 원리와 전략』, 국민일보사, 1997, 87).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자신을 대신해 그 뜻을 성취시킬 방편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만약 오늘날의 교회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거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존재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하고 부임 초기부터 성도들에게 교회가 성취해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 제시해주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비전성취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였다. 필자가 제시한 모든민족교회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 1 말씀의 올바른 선포가 있는 교회. 2 기도의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 3 찬양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4 심야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5 제자양성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 6 일만 명 출석을 위해 전도하는 교회. 7 주일학교 청년 대학부가 살아있는 교회. 8 민족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9 기독인재양성을 위해 학교설

립을 준비하는 교회, 10 선교와 사랑실천을 위해 병원설립을 준비하는 교회.

필자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임을 확신하고 일관되게 성도들에게 강조했다. 정기적인 설교를 통해 이 비전들이 성도들이 성취시켜야 할 하나님의 소원임을 가르쳤다. 그리고 기도회 및 공예배 기도 시에 비전성취를 위해 기도하게 하였다. 그리고 주보 등의 인쇄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비전들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일관된 비전제시를 통해 성도들의 의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제시된 비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게 되었고 많은 성도들이 비전성취에 동참하게 되었다. 비전성취를 위해 모든민족교회는 비전헌금을 자율적으로 작성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2.2. 예배를 통해 말씀이 성도들에게 흡수되는 교회

자동차가 잘 달리기 위해서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엔진의 성능이 특히 중요하다. 전도와 훈련을 위한 시스템이 자동차의 걸 부분이라고 한다면 자동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강력한 영성이다. 교회가 영혼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 위해서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영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영성이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동기부여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모든 민족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예배 때 받은 은혜를 통해서 영혼구원에 대한 강력한 사명감을 부여받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필자는 설교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 깊이가 있으면서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밝히 드러내면서도 공허하지 않고 삶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설교를 하려고 한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해 경책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 전문적인 찬양 담당 교역자의 지도하에 예배마다 찬양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다. 찬양의 분위기는 열정적이어서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

2.3 기도를 통해 은혜를 누리는 교회

필자는 기도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다.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만들어주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민족교회 성도들은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한다. 특별히 금요기도회 시간에는 4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 새벽기도회에 약 200명의 성도가 참석하고 있다. 중보기도부의 사역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저녁 9시까지 교역자와 성도와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가 이어지고 있다. 권사들을 중심으로 한 여전도회 회원들은 매일저녁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하고 있으며 다른 기도그룹들도 자율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분위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회에 유익을 준다. 기도 당사자들이 기도응답을 체험할 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기도응답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접 체험하고 있다. 이것이 성도들의 전도실천에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새신자 정착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성도들이 기도응답 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다.

2.4. 복음전도에 집중하는 교회

모든민족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至上命命)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이다(오브리 맬퍼스, 『21세기 교회개혁과 성장과정』, 홍용표역, 예찬사, 1996, 171). 앞서 언급했던 10가지 비전 가운데서도 6번째인 “일만명 출석을 위해 전도하는 교회”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영혼구원은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하신 지엄한 명령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셨다. 모든민족교회 성도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라는 말씀을 모토로 삼아 영혼구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민족교회는 국내외 선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몽골에 단독파송선교사 3명을 파송하였고, 중국과 루마니아와 태국과 필리핀에 주파송 선교사를 4명을 파송하였다. 몽골에는 두 개의 개척교회를 설립하였으며, 세계 각국에 52명의 선교사와 선교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59개의 교회와 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김해 장유에 장유모든민족

교회를 개척하였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교회당 건축으로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및 전도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모든민족교회는 일 년에 두 차례 전교인이 참석하는 전도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영혼구원의 동기부여하고 있으며 많은 전도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전도행사는 획일적인 방법을 벗어나 교회와 주변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년 하반기에 실시했던 ‘김해사랑 전도축제’는 총동원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약 1000여명의 전도대상자들이 참석하였으며, 2008년 ‘119전도축제’는 새가족 정착에 초점을 맞추어 정착율을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화요전도대가 교회 주변에 나가 전도를 하고 있다. 병원전도, 노방전도, 방문전도, 문서전도로 팀을 나누어 전도를 하고 있다. 화요전도대는 겨울에도 방학을 하지 않고 비가와도 쉬지 않는다. 화요전도대가 활성화되면서 자발적인 전도그룹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 전도소그룹들이 평일에도 모여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있다.

이렇게 교회가 전도에 집중하였기에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었다. 특히 다른 교회에 비해 처음 교회에 나오는 회심전도의 비율이 높다. 2008년 한 해 동안 등록한 새신자가 전도주일을 빼고 469명인데 그 중에서 처음 교회에 나온 원입성도가 203명에 달한다.

구분	원입성도	전입성도	합계
인원(명)	203	266	469

도표2 2008년 등록성도 구분

2.5. 새신자 정착과 평신도 훈련을 위한 시스템이 활성화된 교회

부흥이라는 수레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도의 수레바퀴와 아울러 정착이라는 다른 한쪽의 바퀴가 튼튼해야 한다. 모든민족교회는 전도뿐만 아니라 새신자 정착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이상대, 『교회개혁 컨설팅』, 서로사랑, 2002, 55). 새가족부에 두 명의 교역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새가족부 사역자들을 훈련하여 새가족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새신자가 교구 및 기관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담당교구 교역자들 또한 교구별로 새신자들을 세심하게 돌보고 있다. 새신자들의 출석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새가족부를 통해 교구와 기관에 연결된 새신자들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그리고 역량을 가진 새신자들이 적절한 사역현장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고 있다. 무엇보다 필자가 새가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중 계속해서 새가족을 심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 위해서는 교역자뿐 아니라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역 역량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오브리 맬퍼스, 『21세기 교회개혁과 성장과정』, 흥용표역, 예찬사, 1996, 114). 모든민족교회의 성장 동력의 한 축은 평신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평신도 훈련에 있다. 교양반, 제자반, 사역자반으로 나누어진 제자훈련을 통해 잘 준비된 사역자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들이 기관 및 목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전도 사역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문적인 전도훈련을 위해서는 새생명전도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이 훈련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데 이를 통해 실제적인 전도의 방법을 익히고 있다. 훈련에 참석하는 훈련생들은 훈련을 통해 전도의 방법 뿐 아니라 식어버렸던 복음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어 좋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일년에 수차례씩 전국의 전도왕들을 초청하여 집회를 여는데 이를 통해서도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와 노하우를 배우고 있다.

2.6. 성도의 교제로 하나 된 교회

모든민족교회는 가족같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우울증이 있던 성도가 다른 성도의 깊은 관심과 헌신적인 돌봄을 통해서 회복되기도 했다. 가정이 깨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새신자가 믿음 위에 서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고 가정적으로도 회복 단계에 와 있다.

이런 변화들의 중심에는 목장과 기관을 중심으로 한 소그룹의 교제가 있다. 모든 목장식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는 더욱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목장과 기관식구들이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이외에도 축구와 등산 및 음악동호회 등의 소그룹을 활동을 통해서 큰 교회의 빠지기 쉬운 개인적 교제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7. 기타 요인들

장로교회에서는 당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당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 모든민족교회는 교회 건축이라는 큰 산을 넘으면서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전도에 집중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는데 이것은 당회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당회의 하나 됨에 있어서 담임목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사역의 진전을 위해 관계를 해쳐서는 안 되고 관계 때문에 사역이 지장받아서도 안 된다. 담임목회자가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다. 그런데 필자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먼저 낮아짐의 자세를 가지려고 먼저 섬기려고 노력하였다. 당회원들도 잘 호응을 해주었고 이것이 힘이 되어 전교인이 하나 되어 영혼구원의 사명에 집중하게 되었다.

교회의 부흥에 있어 외적환경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피터 왜그너, 『교회 개혁 이렇게 하라』, 서로사랑, 2002, 81). 모든민족교회는 조금 늦기는 했지만 비교적 적절한 시점과 장소에 교회를 건축하였다. 신도시가 막 조성되는 시점에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였으며 교회부지도 신도시의 중심지에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신도시로 유입되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며 수용할 수 있었다.

Ⅲ. 결론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영혼을 살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만약 목회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교회 안에서 제거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즉 예배, 기도, 훈련, 전도, 교제라는 기둥이 튼튼히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 목회자는 이 본질적인 기둥들이 잘 서 있는지 아닌 지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약해진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보완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교회 안에 생명을 살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힘 있게 나타날 것이다.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역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소리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해본다.



고신 헌법(교회정치) 및 헌법적 규칙에 나타난 교회개혁

2007년 고신 총회의 결정으로 3000교회운동이 시작되어 지난 8월 25일 44호 교회가 개척되었는데(“총회 3000교회운동 44호 개척,” 기독교보, 2009년 9월 5일), 필자는 이 교회개혁운동이 고신의 성장을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 뻗어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고신의 교회개혁 실행 과정에 대한 기본적 동기가 교회 헌법의 교회정치와 헌법적 규칙 안에 어떻게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고, 그에 대한 보충이나 수정이 필요한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또한 헌법개정위원회가 고신 헌법 1992년판의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논의되어야 할 교회개혁에 대한 이슈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1. 교회개혁은 교회정치 및 헌법적 규칙에 어떻게 언급되어 있나?

필자는 이 논문에서 교회개혁이란 기존의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를 장로교회로서의 역할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기본적 면모를 갖추기까지의 준비 및 시작, 진행, 완료의 전 과정의 사역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Shin Chul Lee, *An Exploration and Identification of a Consistent Model for Presbyterian Church Planting in Korea*, a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les, Lampeter, 2009, 2). 그러나 필자가 확인해 본 바로는, 1992년판 고신 교회헌법의 교회정치 편에 교회개혁을 다루고 있는 집약된 항목은 없으며, 산발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약간 찾아볼 수 있을 뿐이었다. 필자가 교회정치 편에 나타나 있는 교회개혁에 가장 근접한 표현으로 찾은 것은 “개체교회의 설립”(제2장 14조)이라는 항목이다. 그 항목의 내용은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일정한 교인들이 회집하다가,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제2장 14조)는 것이다. 제12장 93조에서도 개체교회의 설립은 노회의 열거된 직무들 중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개혁목사(또는 사역자)에 대한 별도의 언급도 전혀 없다. 다만, 전도목사를 “상회의 허락을 받아 교회가 없는 지역에 파송되어 전도하는 목사”(제5장 34조)라고 함으로써 전도목사의 파송에 교회개혁이 전제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교회정치 편에 ‘개체교회의 분립’(제2장 15조)은 “그 교회의 당회와 공동회의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분립은 또 하나의 교회가 생겨나는 것이므로, 개체교회의 설립이긴 하나, 그것이 미조직교회의 설립인지, 조직교회의 설립인지 분명치 않다. 분립을 통해 설립될 교회가 이미 조직교회의 규모를 갖추었다면 그것을 분립을 통한 교회개혁이라고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상이 교회정치 편에 나타나 있는 교회개혁에 관련된 사항들인데 너무 미흡하다.

이에 비하면 헌법적 규칙은 교회설립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언급을 담고 있다. 개체교회의 설립기준(제1장 제1조)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개체교회의 설립에 필요한 교인들의 수는 장년교인(원입, 학습, 세례) 20인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체교회 설립(분립: 분립청원 시에는 당회와 공동회의 회의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점만 설립 청원과 다르며, 다른 제출서

류들은 동일하다. 헌법적 규칙 제1장 제2조 10항 참고) 청원 시에 제출할 서류(제1장 제2조) 중에 “4. 장년 신자수와 가정 수”와 함께 “6. 예배당 상황”과 “7. 교회의 경제적 운영상황”도 포함되어 있어, 교회설립에는 장년교인의 확보는 물론이고, 시설과 재정도 어느 정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8. 부근 교회와의 거리”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개체교회의 설립 신청은 해당 시찰회를 거쳐 노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제1장 제3조), 노회는 설립될 교회 및 그 장소의 형편과 여건을 살펴 합당하면 허락하고, 당회장을 파송하게 되어 있다. (제1장 제4조) 장년교인 20명이 교회설립에 충분한가 하는 것은 차후에 논의하겠지만, 위의 기준을 볼 때 분명한 것은 개체교회가 설립되기까지 적어도 장년교인 20명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며, 예배장소의 시설 및 기본적 재정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6조는 “개체교회가 설립 허락을 받은 후, 장년교인수가 20명 미만의 상태로 2년이 경과되면 노회의 결의에 따라 이를 기도소로 변경할 수 있고, 교회설립의 여건이 회복되면 본 규칙 제1장 제2조 및 동 제3조의 교회설립청원 수속을 거쳐야 한다”고 함으로써 개체교회의 설립 기준을 개체교회의 존립의 검증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장년교인이 20명 미만이 되어 그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기도소로 변경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적 강제성을 띤 규정이 아니고, 노회의 결정에 따라 적용할 수도 있고 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렇다고 하여 개체교회 설립 이전의 개척초기의 모임을 기도소라고 불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제1장 제14조에 보면, 개체교회로 설립되기 이전의 교회를 개척교회라고 지명하고 있으나, 제3장 제23조에 보면 “전도 목사는 사역하던 기도소가 교회설립허가를 받은 후에도 그 곳에서 계속 시무하고자 하면 그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교회설립허가 이전의

모임을 포괄적으로 기도소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적 규칙으로 보면 두 용어의 병용이 가능한 것 같으나, 설립 이전의 새 예배회중에 대해서는 개척교회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설립된 개체교회였으나 다시 그 설립기준에 미달된 모임을 개척교회라고 다시 부르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므로, 기도소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

헌법적 규칙 제1장 14조는 “개척교회의 관리 1. 동일한 노회지역의 개척교회는 그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관리하고, 교회설립허락을 받은 후에는 노회에서 관리한다. 2. 다른 노회 지역 내의 개척교회 관리는 1항에 준한다. 단, 교회설립허락은 개척교회 소속 지역노회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쉬운 것은 개척교회에 대한 정의는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교회정치 제2장 제14조에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일정한 교인들이 회집하다가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고 한 것에 근거하여 개체교회의 설립이전에 일정한 교인들이 일정한 장소에 예배를 위하여 회집할 때, 그 예배회중을 개척교회로 간주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제14조에서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는 설립 이전의 예배회중인 개척교회와 설립 이후에 노회에 정식으로 소속된 개체교회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과 개체교회 설립 이전의 개척교회의 관리는 노회의 소관이 아니라, 그 개척교회를 시작한 교회(모교회라고 하자)의 소관이라고 한 점이다. 그 모교회가 개척교회와 같은 노회 지역 내에 있든지, 다른 노회 지역에 있든지 상관없이, 개체교회로 설립이 되기까지는, 모교회가 개척교회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교회개척사역자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헌법적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도목사, 강도사, 전도인 등이 교회개척사역에 관여할 수 있음을 관련된 항목들을 취합해서 정리해 볼 수 있다. 전도목사는 “상회(노회 또는 총회)

의 파송을 받아 (국내의) 교회가 없는 지역에 파송되어 전도하는 목사”(교회정치 제5장 제34조 4항 ; 괄호 안의 단어는 필자가 삽입한 것임)인데, 그 파송의 목적이 교회의 설립에 있으므로, 교회설립 이후에는 그의 임무가 완료된다고 보고, 설립이후에도 “계속 시무하고자 하면 그 교회의 청빙을 받아야 한다”(제3장 제23조) 고 한 것이다. “농어촌의 미조직교회, 미자립교회 또는 개척교회에서 단독으로 1년 이상 시무 후에 목사로 임직 받을 수 있다(단, 목사 임직 후, 1년간 계속 시무하여야 한다)”(제3장 제5조 3항)라고 제시한 것으로 보아 강도사도 개척사역자가 될 수 있다. 개척교회는 전도인을 선정하여 복음전도의 사역을 하게 할 수 있다(제3장 제39조)고 함으로써 전도인이 복음전도를 통하여 교회개척의 기초를 놓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상이 헌법적 규칙이 교회개척과 관련하여 산발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의 전부이다. 이런 관련 규정들이 너무 단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불분명한 것도 있고, 불충분한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회개척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세부사항을 교회개척매뉴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겠다. 다만, 총회 헌법개정위원회가 기존 헌법의 교회정치와 헌법적 규칙을 통합한 새로운 교회정치 개정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하므로, 교회개척과 관련하여 우선 논의해야 할 사항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2. 교회개척과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사항들.

가장 핵심적인 논의의 주제는 어떤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고신)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한 교회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개척교회의 관리와 교회설립에 한정되어 있는 교회정치 및 헌법적 규칙의 교회개척의 규정들이 충분히 포괄적인가 하는 것이다. 교회정치나 헌법적 규칙에서 교회개척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고, 일관성이 없는 이유는 교회개척을 시작과 진행과 종료가 있는 하나의 전체 과정으로 다루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한 부분적 설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회개척은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며, 언제 종료되는가?

교회정치와 헌법적 규칙을 통틀어서 교회개척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헌법적 규칙에 보면 개척교회의 관리를 모교회에 일임하고, 노회는 개척교회의 설립청원의 적합, 부적합만을 판정하여 허락 여부만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으로는 개척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 동의가 총회적 차원에서 마련될 수 없다. 개척교회를 시작하려면 필수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데, 개척사역자가 지명되어 있어야 하고, 기존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나 새로운 교회개척에 뜻을 같이 하는 핵심 멤버가 있어야 하며, 그 동안 전도한 결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회심에 이르게 된 새로운 개종자들이 있어야 새로운 개척교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개척교회가 시작되기까지의 준비를 위해서는 모교회의 주도적 의지가 필수적이지만, 개척교회로서의 시작을 위하여 준비된 상황을 점검하고 그 시작을 인준하는 것은 모교회 보다 노회가 맡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개척교회는 따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회중으로서 설교와 성례를 행하기 때문에, 모교회와의 연속적 관계에 놓기보다, 노회의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장로교회에 있어서 교회개척에 대한 노회의 역할이 현재의 헌법적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척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개척교회를 시작한 것으로 착각하

는 일이 많은데, 개정된 교회정치 편에 개척교회의 시작 기준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런 혼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교회개척이 언제 완료되는가? 전도목사 또는 개척사역자의 임무는 교회설립으로 종료되는가? 이것은 교회개척의 목표가 무엇이나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의 장로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장로교회의 기본적 면모가 되는 당회를 조직하기까지, 즉 조직교회를 설립하기까지 교회개척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신의 교회정치나 헌법적 규칙에서는 개체교회에 미조직교회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개체교회가 아직 미조직교회인데도 노회의 설립허락을 받으면 교회개척이 종료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나, 그 개체교회는 장로교회로서 아직 제대로 조직되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일 뿐이다. 교회정치문답조례에서는 장로교적 개체교회(Presbyterian particular church)를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치리장로를 선출하고 장립함으로써 조직된”(is ... organized ... by ... the election and ordination of one or more Ruling Elders : J. Aspinwell Hodge, What is Presbyterian Law as Defined by the Church Courts? 4th ed. (Philadelphia: Presbyterian Board of Publication, 1886), 30, 재인용, Shin Chul Lee, op. cit., 284) 교회라고 함으로써 개체교회는 단순히 20명의 교인을 확보한 교회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치리장로 한 명 이상이 장립된 교회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문답조례는 개체교회를 말할 때에 위임목사와 장로 또는 장로들로 구성되는 당회의 조직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정통장로교회는 개체교회(a particular church)를 하나의 조직교회(an organized church)라고 보며(The Committee on Home Missions and Church Extension of the Orthodox Church, Planting an Orthodox Presbyterian Church (Willow Grove, Penn.: 2002), 90), 교회개

척사역자는 “(교회)조직(을 맡은) 목사”(organizing minister)로서 개척초기부터 조직교회가 되기까지 교회개척사역의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필자는 적어도 목사 1명에 치리장로 1명으로 구성되는 준당회가 조직되어야 장로교회로서의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지고 장로교회 교회개척의 과정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척목사가 사역하고 있는 개척교회는 아직 노회에 정식으로 소속되지 않았으므로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지 않지만, 개척교회로 설립 허락된 미조직교회에, 목사가 사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회가 당회장을 별도로 파송하는 것은 불필요한 조치인 것 같다. 그리고 헌법적 규칙에 전도목사를 ‘교회가 없는 지역에 파송’한다고 한 구절은 이미 교회가 없는 지역이 거의 없는 국내의 상황에서 전도목사의 파송을 극히 제한시킬 수 있는 표현이므로, 이 구절을 “전도와 교회개척을 위하여”로 변경한다면, 전도목사의 명칭을 교회개척목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개척사역자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 그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개척교회와 기도소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보다, 설립이 허락된 교회가 설립 기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에만 기도소라고 하고, 새로 시작된 예배회중은 개척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



● 마틴 부씨의 생애 (Ⅱ)

종교회의들

마르틴 그레샤트(Martin Greschat, 1934~)

저자는 1965년에 윈스터 대학의 복음주의 신학부에서 <루터 곁의 멜랑흐톤: 1528년에서 1537년 사이의 칭의론 형성에 대한 연구>(Melancthon neben Luther, Studien zur Gestalt der Rechtfertigungslehre zwischen 1528 und 1537)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99년까지 독일의 기센(Gissen)에 있는 유스투스 리비흐(Justus-Liebig) 대학교의 복음주의 신학부 교회사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레샤트가 저술한 16세기 스트라스부르(Strasburg)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씨에 관한 전기는 가장 최근의 전기로서 <마르틴 부씨: 종교개혁가와 그의 시대>(Martin Bucer, Ein Reformator und seine Zeit)라는 제목으로 1990년에 뮌헨(München)에서 처음 출판되었으며, 2002년에 파리에서 Martin Bucer (1491 - 1551), Un Réformateur et son temps라는 제목의 불어로 번역 출판되었고, 2004년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존 낙스(Westminster John Knox) 출판사를 통해 Martin Bucer: A Reformer and His Times라는 제목의 영어로 번역 출판되었다. 교회사에 관한 그레샤트의 소논문과 저술은 너무 많아 여기서 모두 소개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다. 그의 저술목록(Schriftenverzeichnis Martin Greschat)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muenster.de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의 최근 저술로는 2002년에 출판된 <복음적 기독교와 1945년 이후 독일 역사>(Die evangelische Christenheit und die deutsche Geschichte nach 1945)와 2005년에 출판된 <유럽의 개신교>(Protestantismus in Europa) 등이 있다. 그는 1981-1986년 사이에 12권으로 편집 출판된 <교회사의 인물들>(Gestalten der Kirchengeschichte)의 편집인으로도 유명하다.

번역된 원고는 그레샤트의 책 <부씨: 종교개혁자와 그의 시대>의 “6장. 제국의 종교개혁” 속의 내용 일부이다. 1장은 부씨가 태어나 성장한 배경을, 2장은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

(Erasmus)와 종교개혁가 루터(Luther)에게 부씨가 받은 영향을, 3장은 스트라스부르 초기 시절, 4장은 스트라스부르 종교개혁의 대변인이 된 부씨의 도시개혁을, 5장은 개신교 연합운동의 선봉장이 된 부씨의 활약상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6장은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인 개신교와 로마교 사이의 연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아직 개신교라는 교회가 로마교와 완전히 결별하기 이전이라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읽는다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보름스

황제 칼 5세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황제의 재무관 니콜라 페리노 드 그랑벨르(Nicolas Perrenot de Granvelle)가 1540년 11월 25일 라인 강에 자리 잡은 역사적인 도시에서 엄숙하게 회의를 개최했다. 부씨는 이미 11월 1일에 도착해 있었다. 양측은 하계나우에서 두 개의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각 위원회는 11인으로 이루어지며 협상의 출발점이 될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결과도 도출 되지 않았다. 가톨릭 측은 결코 자신들끼리도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곧 깨달았기 때문이다. 선제후 지역인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와 팔츠(Pfalz=Palatinate, 팔라티네이트)는 명백하게 프로테스탄트로 기울어져 있었다. 에크의 신학적 입장은 가톨릭 내부에서 다수의 동의를 얻어낼 수 없었다. 심지어 로마의 교황 사절단인 지오반니 모로네(Giovanni Morone)와 로렌조 캄페기오(Lorenzo Campeggio)도 서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슈말칼덴 동맹의 회원들은 1540년 9월 멜랑흐톤이 제시한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 수정본(Confessio Augustana variata)을 중심으로 신학적인 협상을 시작하도록 애타게 요청하였으나, 가톨릭 대표들은 힘을 다해 이런 협상들이 시작 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서로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팽배하고 정치적 속임과 배신의 모습을 띤 분위기 속에서 그랑벨르는 마침내 대변인을 정하라고 양측을 설득하는데 성공했다. 황제의 재무관에게는 단지 프로테스탄트 고위공직자

들의 성공을 막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가톨릭 사이의 말다툼과 불화를 공개되는 것을 막아야 했던 것이다. 필립 멜랑흐톤(Philipp Melanchthon)과 요하네스 에크(Johannes Eck)는 원죄라는 주제로 깊은 토의를 1540년 12월 24일에서 1541년 1월 17일까지 오랫동안 진행했다. 늦은 밤 그들은 그랑벨르의 숙소에서 공동 합의문을 작성했다. 그 다음날 황제의 재무관은 황제의 이름으로 회의를 폐회하면서 다가오는 봄에 레겐스부르크(Regensburg=라티스본, Ratisbon)에서 열리게 될 제국회의에서 협상을 계속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노련한 정치가였던 그랑벨르는 이로써 칼 5세를 위해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었다. 적어도 몇몇의 신학자와 정치가의 승인을 얻어낸 글의 형식을 갖춘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합의문이 바로 그것이었다. 부씨는 분명하게 이 일이 성사되도록 도왔다. 보름스에서 그는 다시 한 번 쾰른 대주교의 대표로 그곳에 온 요하네스 그룹퍼와 동석했다. 이 두 사람은 하계나우에서 이미 서로를 알았고 이 신칭의(믿음으로 의롭게 됨)를 포함한 다수의 신학적인 문제와 교회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동일한 사상을 교환했다. 1538년 발간된 그룹퍼의 『기독교 교육 지침서』(*Enchiridion christianae institutionis*)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부씨가 그를 같은 영혼을 가진 동족으로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룹퍼 역시 성경과 교부들을 근간으로 하는 신학을 전하려고 했고 편협한 교리를 경계했다. 그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하며, 이것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힘이 되어준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없애버리시고 더 높은 윤리적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믿음은 신뢰이고 그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이해하게 되면서 그룹퍼는

프로테스탄트 쪽으로 진일보 전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확신은 또한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교리는 거부하도록 이끌었다. 기독교인들의 윤리적인 약속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이유로 그는 이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부셔는 우리가 위에서 본 것처럼 윤리를 강조하는 그룹퍼에 동의했고, 두 신학자 모두 성령의 역사에 큰 의미를 두었다.

부셔와 그룹퍼는 자신들이 궁극적으로는 신학적으로 일치한다고 확신했다. 비록 각기 다른 용어와 방법을 쓰기는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동일한 것을 의미했으며 동일한 목표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둘 사이의 확신과 신뢰는 자라갔다. 그러나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이 커져가는 교감으로 인해 차이와 반목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어 서로 속았다고 느끼게 되었고 서로 상대방에게 기만당했다고 느꼈다.

그러나 처음에는 조화와 동의가 우세했다. 두 사람은 보름스에서 서로 자주 방문하였고 자신들만의 협상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공식적인 회의는 어느 곳에서도 열리지 않았다. 1540년 12월 14일 그룹퍼와 재무관의 비서 게르하르트 펠트베이크(Gerhard Veltwyck)는 부셔에게 그룹퍼가 비밀 협상을 요청한다고 알려 주었다. 부셔와 카피토(Capito), 그리고 펠트베이크와 그룹퍼는 다가오는 제국의회에서 종교적인 협상의 기초가 될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고자 했다.

이런 소식은 부셔를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만들었다. 이때까지도 그는 칼 5세가 교회의 개혁을 조금이라도 지지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국가적 회의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확신했었다. 그가 헷세의 필립에게 편지를 썼던 11월 22일 까지도 “독일의 자유와 정의의 가장 큰 적은 제국의 궁정입니다”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랑벨르는 갑작스럽게 부셔에게 평화를 원하는 지각 있

는 칼 5세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쟁을 옹호하던 무리들은 힘을 잃게 되었다. 부씨는 야콥 슈투름(Jacob Sturm)과 헛세의 재무관 요하네스 파이게(Johannes Feige)에게 자문을 구했다. 두 사람 모두 그랑빌르의 계획에 호의적이었다. 12월 20일 부씨는 필립에게 이미 진행되고 있던 협상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위임을 요청했고 필립은 즉시 그를 보냈다.

부씨는 위험한 임무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와 카피토는 영주 필립에 보내는 12월 20일자 편지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것이 아닌지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라고 적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고 신학적이며 또한 목회적인 동기로 인해 그는 이 일에 참여 하게 되었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가톨릭 진영이 아주 미세하기는 하지만 우호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서로 상반되는 입장으로 나뉘게 되었다. 세속 군주들은 부씨가 부단히 노력한 결과로 어찌 되었든 종교개혁의 입장으로 기울었다. 그리고 대주교 군주들은 교회의 재산을 유지시킬 수 있고 세속 군주로서 통치를 지속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쉽게 동의를 할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동시에 프로테스탄트들도 교회가 존재했던 첫 일세기에 도입된 모든 법률과 의식을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여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로써 부씨는 반대 진영에 속했지만 서로 호의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현 상태를 잘 이용하여 동의를 얻으며 부차적으로 승인도 받아내려 했고, 결과적으로 교황을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했다.

1540년 12월 15일에서 31일까지 협의는 보름스에 있는 그룹퍼의 거주지에서

극비리에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으로는 그와 부썬 사이의 대화였다. 이 토의에서 나온 23개 항은 그룹퍼가 작성한 초안에 근거하고 있다. 이 작성 안에서 부썬가 담당한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는 없다. 이 조항들에서는 성인의 숭배와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의무적인 신앙고백 등과 같은 개인적인 미사의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조항을 끝맺고 있다. 그리고 비록 가톨릭 진영을 달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성경, 전통, 교회의 직분, 원죄, 의롭게 됨, 선한 행위, 교회, 성례, 의식 등과 같은 문제를 다룬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원래의 계획으로는 다른 신앙고백을 한두 진영에서 각각 존경 받는 군주들, 즉 헷세의 필립과 브란덴부르크의 선제후 요아킴(Joachim) 2세 모두에게 비밀리에 “보름스 책자(Worms Book)”의 내용을 알리기로 했지만 그랑벨르는 필립이 먼저 승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자신의 이중 결혼으로 인해 불안한 처지에 놓여 황제의 선처만을 의지하고 있던 영주 필립은 1541년 1월 7일 기센(Giessen)에서 부썬로부터 짧게 그 내용과 목표를 전해들은 후 승인을 하긴 했지만 다른 프로테스탄트 군주들로부터 고립되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1월 9일 부썬은 보름스로 돌아 왔다. 그랑벨르는 원하던 것을 얻었다. 그러나 부썬의 목표는 보다 광범위한 것이었고 전체적으로 훨씬 더 복잡한 것이었다. 그가 원하는 대로 가톨릭 군주들의 결속을 점진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프로테스탄트들 사이에서 최소한의 통일은 이루어져야 했다. 그러나 사정은 그렇지 못했다. 특히 작센(Sachsen=색소니, Saxony) 선제후는 부썬의 진행 방식을 매몰차게 거부했다. 루터(Luther)는 물론이고 멜랑흐톤마저도 부썬의 행동에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선제후 요한 프리드리히(Johann Friedrich=존 프레드릭, John Frederick)는 작센에 팽배해 있던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

다. “수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우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응하고 그 교리를 받아 들여야만 한다.” 그리하여 1541년 봄 레겐스부르크 제국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종교회의에 대한 분위기가 아주 호의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레겐스부르크

도시의 사절단을 비롯해 제국의 의회원들, 즉 선제후와 제국의 군주들, 혹은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3월과 4월에 제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기 시작했다. 황제 칼 5세는 2월 23일에 도착했고, 부씨는 3월 10일에 도착했다. 정치 지도자로는 황제의 재무관 그랑벨르가 참석했다. 교황의 사절인 가스파로 콘타리니(Gasparo Contarini) 추기경은 가톨릭 진영에서 종교적으로나 성직사회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평가 되었다. 젊은 시절 그는 루터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포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경험했지만 이것을 의도적으로 전통적인 신학과 신앙에 일치시켰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콘타리니는 다른 가톨릭 진영의 어느 신학자들보다도 훨씬 종교개혁의 신앙적 뿌리에 익숙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제국회의를 개최 하면서 칼 5세는 종교적 문제들이 더 작은 규모의 위원회에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4월 21일 황제는 에크와 율리우스 플룩(Julius Pflug)과 그롭퍼(Gropper)를 가톨릭 진영의 대표로, 그리고 멜랑흐톤과 부씨와 요하네스 피스토리우스(Johannes Pistorius)를 프로테스탄트 진영의 대표로 임명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황제는 에크의 임명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처음부터 루터의 반대파로 지난 20십년 동안 줄기차게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작센의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대변인으로 멜랑흐톤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후보였다. 부써와 그로피와 더불어 플룩과 피스토리우스를 택한 것은 칼 황제가 얼마나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보여준다. 알스페트(Alsfed)의 총감독(superintendent)과 헛세 영주의 절친한 친구와 더불어 나움부르크-차이츠(Naumburg-Zeitz)의 선제후 주교는 모두 원리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면에서 정치적인 평화를 강력하게 염원하는 후원자였다.

4월 27일 그랑벨르와 팔츠의 백작 프리드리히를 위원장으로 하여 대화가 시작되자 부써는 물론이고 양측의 기대와 희망은 최고조에 달했다. 에크와 멜랑흐톤이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제목 없이 그랑벨르가 봉인한 문서들을 토의의 기본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한 것을 보면 양측이 상대방을 얼마나 수용하려했는지 알 수 있다. 이 “레겐스부르크 책자(Regensburg Book)”는 단지 콘타리니와 가톨릭 신학자들이 사소한 수정을 했을 뿐 근본적으로는 그로피와 하려했는 “보름스 책자”였다. 작센 선제후의 대표인 멜랑흐톤도 더 이상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이 협상의 출발점 더는 주레겐스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새로운 “레겐스부르크 책자”를 비난하는 에크의 통명스러운 주장을 가톨릭 진영의 다수도 지지하지 않았다.

인간의 원죄와 타락을 다룬 처음 4개의 조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4월 27일까지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논제는 더 어려운 문제였다. 에크와 멜랑흐톤은 곧 이 문제에 대해 사이가 틀어져 버렸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새로 작성된 문안에 5월 2일까지 양측은 합의를 이루었다. 여기에서는 콘타리니와 부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성공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잔뜩 고무 되었다. 각각의 다

른 두 신앙고백 사이에 화해의 걸림돌이 되었던 방해물이 명백하게 제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은 교회론이 논의되자마자 곧 깨어졌다. ‘무엇이 먼저인가?’의 문제, 즉 ‘성경이냐, 아니면 교권, 즉 교회의 가르치는 권리냐?’의 문제였다.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진영은 이 문제에 관하여 충돌하여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못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관점의 차이를 기록하여 둔 채로 회의를 계속 진행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성례와 그 중요성을 논하면서 동일한 의견 충돌이 또 다시 일어났다. 세례와 견진(=입교, confirmation)을 다룬 10-13 항에 대해 논의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5월 4일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미사와 성찬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고 말았다. 콘타리니는 “화체설”(transubstantiation) 개념을 1215년 로마에서 열린 제 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선언된 교리에 의거하여 14번째 항에 넣었다. 그것에 의하면 미사에서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베네치아의 추기경은 무조건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옹호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가톨릭 진영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태도를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5월 8일 부씨가 미약한 노력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하에서도 프로테스탄트들은 이 주장을 수용할 수 없었다. 회의 전날에 그렇게 고무되었던 독일에서의 기독교 세계의 통일과 쇄신에 대한 희망은 교회와 그 가르침의 권위를 이해하는 입장의 차이로 빗어진 갈등으로 인해 무너져 버렸다. 교황과 그의 지지자들의 신학적 정치적 입장을 중립적으로 바꾸어 보려고 했던 부씨의 부단한 노력은 환상에 불과했다. 정확히 반대 상황이 발생했다. 즉 그의 대적들은 잃었던 기반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 새롭게 일어난 가톨릭 진영의 힘은 레겐스부르크

종교회의의 중대한 결과물이었다.

이런 좌절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계속 진행 되었다. 6명의 신학자들은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5월 14일에서 22일까지 토론했다. 물론 이제는 서로의 이야기를 좀처럼 들으려하지 않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역설하는데 주력했다. 부써와 그랑벨르는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해 더욱 노력했다. 이런 이유로 6월 8일 그들은 제국 의원들에게 서로의 이야기를 좀처럼 제출했고, 자신들의 견해럼 밝히기 위해 프로테스탄트들의 반대 조항 9개쯤 여기에 덧붙였다. 이러한 동안 교황 측과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합의문을 거부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제국 의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좀처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려 뵈써와 그랑벨 7월 5일 가톨릭 진영은 본문에 자신들의 견해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에 프로테스탄트들은 7월 12일 자신들은 모든 관련 내용들은 아욱 이야기를신앙고백서와 그 변증서(Apologia)에 비추어 해석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제 서로에 대한 인내는 관심 밖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부써는 자신의 프로테스탄트 동료들에게 좀처럼 오써와 는 이런 상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순수한 교리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조항들에 대해 제국의 의회가 공식적으로 서명을 하도록 만들자고 호소했다. 그의 호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1541년 7월 29일 레겐스부르크 회의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생각과는 상당히 어긋난 폐회 선언(Reichstagsabschied)을 발표했다. 이것은 적어도 고위 성직자 군주들에게 자신들의 영토 안에서 개혁을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프로테스탄트 토지에 대해 제국의 법적인 보호를 18개월 연장하도록 했다. 그리고 칼 5세는 국가적 교회회의를 계속 개최한다고 맹세했으나, 그것은

오직 구두로만 했던 것이다. 만일 그가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앙고백의 문제가 다음 제국의회 의제가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으나 이 맹세를 어떻게 실현 시킬 수 있는가? 그토록 호의적인 조건 아래에서도 모두 다 실패했는데, 이런 협상이 미래에는 성공하리라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가?

칼 5세는 회의의 결과에 대해 몹시 실망했다. 신앙고백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의 노력은 분명한 실패였다. 그렇지만 그가 종교 전쟁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그가 추구한 합리적인 목표는 슈말칼텐 동맹을 약화시키는 것이었다. 이 동맹을 그냥 넘기기에는 그 세력과 자신감이 급성장했다고 황제는 느꼈던 것이다. 그는 레겐스부르크에서 두 번의 기회를 맞이했고 능숙하게 이를 이용했다. 처음 기회는 헛세의 필립과 관련 된 것이다. 칼이 필립의 이종결혼을 눈감아 주는 대신, 필립은 1541년 6월 13일 그 대가로 클레베(Cleve)의 공작이 슈말칼텐 동맹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것과, 이 동맹과 프랑스 사이의 동맹이 맺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겠다는 맹세의 비밀 협상을 했다. 여기에 헬더란트(Gelderland)와 쥬터펀(Zutphen)에 대한 합스부르크 가의 요구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칼 5세는 브란덴부르크의 요아킴 2세와도 동일한 협정을 맺었다. 이 선제후는 슈말칼텐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새로운 교회법을 도입해도 좋다는 허락을 얻어 내었다. 이로써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 두 명의 영향력 있는 군주들이 중립적인 입장에 서게 되었다.

레겐스부르크 회의의 결과는 부씨에게도 커다란 퇴보였고 이 실패는 그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러나 부씨는 자신의 목표나 방법에 큰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그는 헛세의 필립에게 역량을 총 동원하여 종교회의가 과거의 일이 되어버리지 않고 제국의 정치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한없는 은혜를 보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 정부와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집 앞에 마치 벽과 같이 우뚝 서 있어야 하며 교회가 도움을 얻을 때까지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방법에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다음번 제국 의회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으로 계속 일치를 이루지 못하여 하나님의 분노에 놓이게 된다면 터키 군과 맞서야 할 때 무력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부셔는 필립에게 편지를 썼다.

부셔가 이 편지를 썼을 때 그를 이끈 것은 실용이 아니라 원칙이었다. 그러나 그는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지 않았다. 우선 개혁을 극도로 싫어하는 고위 성직자들에 대해 독일 내에서 확산 되어가는 불만족의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출판을 통해서 더욱 키워 나갔다. 또한 여러 독일 지역에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계속 되고 그 세력을 굳건히 확장해 가는 것에 희망을 걸었다. 레겐스부르크 회의가 휴회되기 전 7월 14일에 부셔는 교회의 몰락을 극복 할 수 있는 분명한 제안을 담은 비망록을 황제에게 전했다. 교회 재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 작성한 제안문에서 출발하여 부셔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냈다. 레겐스부르크에서 합의 된 조항을 두 진영 간의 화해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각 진영은 자신들이 보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성례의 형식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한 각 진영은 목회자의 자유로운 선택, 목회자가 결혼할 수 있는 권리, 목회자를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교회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멜랑흐톤이 이 문제 대해 작성한 본문과 함께 이것을 보아야 하며 이는 부셔가 이 시기에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 매김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멜랑흐톤이 자신의 교육적 모형인 학교에 준해 교회와 사회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반면에 부씨는 신학적으로는 멜랑흐톤과 같은 견해를 분명히 하면서도 법적이고 사회적인 상황과 의무를 고려하여 변화의 필요성과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적고 있다.

그 이후의 상황 전개는 부씨가 양측에 요구한 서로간의 제한된 인내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기 때문에 이제 이 스트라스부르 개혁가는 문학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계속해서 레겐스부르크 회의의 폐막 선언을 주교 군주들에게 주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영토 내에서 교회의 개혁을 이끌어 갈 것을 요구했다. 1541년 여름 그는 여러 차례 재발간된 교회의 타락에 관한 작은 책자(*Abusum ecclesiasticorum indicatio*)를 출판하였고 이 책에서는 성경의 기준과 그 성경에 근거한 초대 교회의 규칙으로 성직자들을 쇄신 한다면 교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부씨는 여전히 신성로마제국에서 번져가는 종교개혁의 확산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는 신학과 교회와 관련된 협상을 통해 이 전개 과정을 돕고자 했지만 한 편으로는 프로테스탄트의 제국의 귀족 의원들이 그들의 실제적인 정치적 힘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려고 했다. 이런 이유로 1541년 8월 28일 영주 필립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강조했다. “우리가 합의를 이룬 [레겐스부르크의] 조항으로 인해 뮌헨과 뮌스터(Münster), 팔츠, 클레베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그러한 어떤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또 다시 그 이후에 발전한 교회와 정치에 관련된 상황들은 부씨의 대담한 계획이 원했던 것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개혁신학 양서연재 4

존 칼빈(John Calvin)과 성령의 인치심(II)

이 글은 화란 아플도른 신학대학의 교회사 명예교사인 Willem van't Spijker(1926-) 박사의 *De verzegling met de Heilige Geest* (Kampen: De Groot Goudriaan, 1991)라는 단행본의 pp. 69-79을 번역한 것이다.

판 스파이커교수는 197년 화란자유대학교에서 ‘마틴 부씨의 직분론’(De ambten bij Martin Bucer)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는데 이 졸업논문은 학문적 탁월성을 인정받아 최우수 성적(magna cum laude)을 받았다. 그는 유타레흐트(Utrecht) 지역의 화란기독교개혁교회(Christelijk Gereformeerde Kerken, CGK)에서 다년간 목회 후 1972년부터 교단 신학대학인 아플도른 신학대학(Theologische Universiteit van CGK in Apeldoorn)의 교회사 교수로 25년 간 봉직한 후 1997년에 은퇴하였다. 칼빈과 부씨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연구에 평생을 바쳤으며 많은 저서들을 남긴 그는 특히 부씨를 중심으로 종교개혁 연구에 평생을 바쳤으며 많은 저서들을 남긴 그는 특히 부씨 연구와 칼빈을 포함한 종교개혁의 교회론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학자이다. 현재 활동 중인 그의 제자들로는 아플도른의 Herman Selderhuis교수, 장신대의 최운배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e Ecclesiastical Office in Thought of Martin Bucer (E. J. Brill)>, <Calvin: Die Kirche in Calvin ihr Geschichte (V & R)>, <Luther en Calvijn>, <Luther: Belofte en ervaring>, <Reformatie en geschiedenis>, <Triptiek van de geschiedenis>, <Geest, woord en kerk>, <Gemeenschap met Christus>등이 있다. 저자의 동의를 받아 본서를 계속해서 번역 연재할 예정이며 최종 단계에 이르러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들을 함께 번역 소개할 계획이다.

칼빈은 예정론을 성령의 사역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자리 잡도록 하였다. 예정론은 거기에서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 교리의 정점으로 작용한다. 이 칭의는 순수한 은혜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은혜의 완전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정론보다 더 나은 도구를 생각할 수 없는데, 예정론은 인간의 공로에 대해 절대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에 사람의 머리 위를 맴도는 어둡고 위협적인 구름이 끼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예정론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사고에 의해 지배된다. 비록 구원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비롯되지만 구원의 어떤 행위도 시간이나 영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라는 끈을 시간 안에 놓는 분이시다. 또한 성령 자신이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을 이루는 끈이다. 따라서 칼빈이 말하는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역이 시간 내에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시화되는 것으로 기술된다.

성령의 증거는 숨겨진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 마음과 양심 속에 드러낸다. 성령의 이러한 증거는 먼저 다른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 형제들의 선택에 관해서 그렇게 염려하면서 궁금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선택되었다고 간주하도록 이 사실은 오히려 부르심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함에 대한 표징에 해당된다.(벰전 1:1)”

시몬 판 데르 린드(Simon van der Linde) 교수는 칼빈의 성령론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의미를 지닌 몇 가지 본문들을 언급한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은혜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한다. 이 은혜는 열매 없이 머무르지 않

는다. 주님께서 그의 부르심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의 자녀로 삼으신다고 인지한다. 비밀스러운 사실로 내려가거나 올라감으로서 우리가 선택 받았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확실성을 찾는 것 보다 더 위협하거나 거꾸로 작용하는 것은 없다.”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 이 부르심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진지함과 올바름을 가리킨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선택함을 받았음을 깨닫기 위해서 ... 그가 우리를 자신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실 때 그리고 그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빛을 비취 주실 때 우리는 자신 안에서 법적 증거서를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며 성령은 이를 인지한다. 더욱이 우리를 중생하도록 만든 복음에 대한 신뢰와 성령의 은혜와 더불어 우리는 스스로 만족스럽게 여긴다.’ 여기에서 칼빈은 또한 믿음이 그 기초를 둔 복음의 약속을 지적한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의 확실성에 대하여 충분한 보증에 해당하는 성령의 사역, 중생의 은혜를 언급한다. 중생, 즉 모든 삶에 대한 영적 부흥이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질문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에 관해서 나중에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거룩함이 없이는 어떤 확실성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거룩함이 확실성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확실성은 은혜, 복음, 그리고 성령의 증거에 달린 것인데 이를 통해 복음이 우리 삶에서 확고해진다. 칼빈 자신은 이런 맥락에서 성령의 은사를 선택에 대한 표징으로 말한다: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은사가 비밀스러운 선택에 대한 참된 표징이므로 성령이 수여하시는 은사를 아주 드높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다.’ 이 점에 있어서 칼빈은 아주 조심스럽다(빌 4:3). 그 표징에 대해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사실에 대해 사람이 판단하게 된다. ‘우리는 표징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에서 그의 선택을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자 삼음에 대한 표징이 분명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 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그 분이, 그 책이 공개될 때 모든 것을 완전히 선언하실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게 될 것이며 염소들로부터 양을 분리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자기 양떼들을 우리에게 모으시고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르시는 목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양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합하다.’ 인식 가능한 성령의 은사는 신비스러운 선택의 인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성령의 증거 또는 성령의 인치심은 인식을 위한 표징으로 존재하는데 이 표징은 형제들 상호간에 그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는 믿는 자 자신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유효하다.

칼빈은 다양한 곳에서 부르심과 선택을 서로 연관시켰다. 즉 선택의 확실성은 부르심의 진리에 근거한 것이다. 요한복음 6:40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더욱 분명히 양자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본문은 다음과 같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 칼빈의 설명을 전체적으로 다시 보여주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는 이미 이를 언급했다. ... 하나님께서 그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믿음에 의해 보호받기를 원하실 때, 그리고 그의 영원한 결정을 이러한 방식으로 유효화하고 실행에 옮기실 때,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원한 선택

에 관하여 호기심을 지니고 질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영생을 얻으려는 자들이다. 선택은 전적으로 숨겨진 것이며 신비롭다. 주님은 우리를 참되다고 인정하시는 부르심을 통해 선택을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따라서 사람이 자신과 다른 사람의 영생을 선택을 정해진 길에 굳건히 머무르지 않은 채 예정이라는 미궁에서 찾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이다. 그렇다!

그들은 이런 잘못된 견해를 수용하여 예정의 능력과 효능을 파괴해버린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게 될 것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믿음을 버리고 선택을 파기해 버리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안에 세워진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하나님의 선택이 부르심과 분리할 수 없는 끈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니도록 효과적으로 부르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새겨 넣은 입장을 가지고 우리의 영생에 관한 그의 작정을 우리에게 확증시키는 것과 같이, 선택 또한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왜냐하면 성령의 증거는 양자 삼음에 대한 인치심과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자에게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이므로 사람이 이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된다. 또한 성령의 단순한 증거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성령에 대하여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칼빈에게 성령의 증거는 인치심의 표현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된다. 인치심은 성령의 사역에서 드러나는데 이는 믿음에 활용된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이 스스로를 복음의 약속, 즉 믿음의 기초위에 놓게 될 때 확신이 일어나게 된다. 성령의 인장은 이 약속의 진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

나님의 책을 보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를 신뢰하는 것이며, 그와의 교제를 통하여 성령, 즉 선택의 거울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표식을 지닌 확실함이 주어지게 된다.

우리가 인침을 받은 성령은 확실함을 가져다주시는데 이는 말씀의 확실성에 기인한 것이다. 성령의 증거는 우리에게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가져다준다. 만약 믿음에서 말씀을 제거해 버린다면 믿음이 전혀 성립될 수 없다! 따라서 말씀의 확실성은 또한 믿음의 확실성에 대한 기초이다. 성령의 증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신뢰를 불러일으킨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에 인쳐지게 되는데 이는 확실한 인치심으로서 이를 통해 약속이 우리에게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의 확실성과 믿음의 확실성 속에 선택에 대한 확실성을 논할 수 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확실성을 제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약속의 능력을 인장으로 마음속에 새겨주시는 것이다. 그는 장래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며 인장이며 우리 마음은 이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게 된다(『기독교 강요』 III, 24, 8). 말씀, 믿음과 선택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장으로서의 성령과 관계되는 핵심 용어에 해당된다.

칼빈은 삶의 성화와 관련지어서 이 측면을 거듭해서 설명한다.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고, 선택이 없다면 인치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성화가 없는 곳에 인치심이 논의될 수 없다. 인치시는 성령은 아무런 이유 없이 중생의 영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 아니다(『기독교 강요』 III, 24, 8).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힌다는 차이를 주장한다. 그는 이를 부르심의

두 가지 성격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의 외적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보편적 부르심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는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데 이는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해 일어나며 말씀이 마음속에서 자리 잡게 된다. 외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과 관계된 것이다. 사람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에 입회하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성화로 옷 입지 않고도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외적 부르심은 결정적이지 않다. 이미 인정된 바와 같이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삶에 있어서 이를 배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판단으로 최선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정죄하지 아니하지만 주님은 마음을 아신다. 성화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인치심이 결여되게 마련이다. 우리는 우리를 삶의 새로운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화의 영에 의해 인치심을 받는다.

칼빈은 중생의 영을 언급한다. 그는 이 용어를 신앙고백서(역자주: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가리킴)에 언급된 것과 똑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중생함을 얻는다. 우리는 도르트 신경(Dordt Cannon)이 중생의 개념을 다루고 있음을 기억하는데, 거기에서 이는 정확히 다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중생은 우리가 영적 죽음에서 살림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의 행위이다. 칼빈도 이런 좁은 의미에서의 중생을 논할 수 있다. 칼빈에게도 믿음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열매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부분 그는 중생이라는 용어를 전체적 삶의 성화, 영적 갱신의 의미로 사용한다. 종교개혁은 도덕을 포기한다는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다. 자유로운 은혜와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에 관한 설교는 조심스럽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양육할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우리가 새롭게 되는 믿음의 힘과 의미를 드러내고자 했다. 그는

이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순서에 얽매이지 않았다. 칼빈은 구원의 순서를 연대기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성령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교제로부터 갱신, 칭의, 그리스도인의 삶, 자기 부인을 포함한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은 선택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부터 분리할 생각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인치심이 중생의 영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칼빈은 성경이 증거하는 인치심과 성화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을 지적한다. ‘우리가 느끼고 우리 마음속에 인장으로 새겨진 성령의 증거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의해서 죄짓음과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인치심을 받게 된다. 베드로는 이러한 이유로 믿는 자들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순종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말한다(『기독교 강요』 III, 1,1).’ 성화와 인치심은 직접적인 상호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

위에 언급된 사실에 근거해서 살펴볼 때 베드로전서 1:2에 대한 칼빈의 주석은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사고를 발견하게 된다. 즉 하나님의 신비로운 선택은 성령의 특별한 계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알려질 수 없다. 이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칼빈은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시작한다.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교회에 받을 붙이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가 선택함을 받았다고 사랑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랑의 판단은 다른 사람에 관계된 것이다. 나머지 경우에 선택에 관하여 사람들은 열매에 따라, 즉 결과와 그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은혜에 관해서 말할 때 이는 우리가 언급

할 수 있는 단지 한 가지 원인에 관계된 것이다. 이 한 가지 원인이란 하나님의 호의인데 이는 하나님의 자유롭고 강제되지 않으며 자발적인 사랑을 뜻한다. 그러나 이는 선택하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관한 것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를 달리 한다면(칼빈은 이를 거꾸로 한다고 표현한다), 우리에게 너무 깊은 미궁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 ‘이 열매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인데 이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서 복음에 대한 외적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과 성령의 내적 움직임에 의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이를 요약하는 차원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생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서 흘러나온다는 요약을 제공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이를 믿음의 경험이라는 차원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두 가지 결과 또는 목적, 즉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위해 우리가 재창조되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 죄씻음 받았음에 관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성령의 사역이라는 점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의 의가 삶의 새로움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택 또한 부르심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벰전 1:2). 칼빈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삶의 순수함이 선택의 아주 정당한 표징이자 증거로 불리워질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믿음에 확증하게 된다. 즉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실한 기초가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놓여 있음을 확증하게 된다. 사실적 확고함은 그들의 의식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르심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거룩함에서 확실한 것

으로 보인다. 성령이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결과로부터 보여진다. 우리는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거룩함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알 수 없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지식의 근원은 말씀, 복음 그리고 약속에 놓여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 단지 그 분 안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 분 안에 새로운 삶에 대한 원천과 힘이 놓여 있으며 성령의 사역 안에 진실이 담겨져 있다.

성례는 성령의 인장이라는 사실은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이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성화되며 인치심을 받는다(네덜란드신앙고백서, 제 27조). 성령은 이를 위해서 수단을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이 수단으로서의 세례와 성찬을 생각하신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이의 사용을 통해서 복음의 약속을 더욱 잘 이해하고 인치시려는 의도로 제정하신 가시적 표징이며 인장이다(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답 66). 믿는 자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며 언약의 예표로서 이를 인쳐야 한다(네덜란드신앙고백서, 34).

또한 세례를 위한 공식 안내서(역주, 세례의 집례를 위해 필요한 표현들을 모아 놓은 일종의 안내서로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대부분의 신앙고백서에 포함되어 있음)의 표현들 또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세례는 관습이나 미신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인치려는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인치신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죄씻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인치신다. 성부 하나님 자신이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 언약을 세우셨음을 증거하시고 인치신다. 성자는 그가 자신의 보혈로 우리

를 씻었음을 우리에게 인치신다. 이런 방식으로 세례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맺었음을 보여주는 인장이며 이에 대한 의심할 수 없는 증거이다. 세례이후 행해지는 감사 기도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가 이를 우리에게 거룩한 세례로 인치시고 유효하게 만드신 그의 은혜를 찬양한다. 비록 세례를 위한 공식 안내서에 ‘인치심’이란 용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을 인치시기 위해 성령이 활동하신다는 사실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언약의 표징과 인장을 우리는 성례라고 부른다. 또한 다른 개혁신의적 신앙고백서에도 성례에 관해서 이런 방식으로 설명이 주어져 있다. ‘인치심’의 개념을 성례에 관한 설명에 적용한 것은 특별히 칼빈이었다.

칼빈과 불링거(Bullinger)는 1549년에 성례와 그 의미에 관해서 합의에 도달했다. 이 화해의 문서에서 칼빈은 자신의 신학에 있어서 본질적 동기를 표현할 수 있었다. 또한 여기에 핵심적인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대한 사고이다. 교회와 그 제정에 관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해야만 한다. 교회 정치의 모든 방식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간다는 목적 외에 어떤 다른 목적도 지니지 않고 있다. 성례에 관한 참된 지식은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지식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 분은 우리가 양자됨에 관한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람이 되셨다. 이는 우리가 믿음과 성령의 능력에 의해 그의 몸 에 접붙임을 받음으로서 발생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그 분과의 교제가 일어난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복음에 관한 설교와 성례전의 집행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성례전은 그리스도와 맺는 교제에 대한 표징과 인장이라는 목적을 제외 한 어떤 다른 목적도 지니지 않는다. 성례전은 감사를 촉진하는데 사용된다. 그

러나 성례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께서 이를 통해 그의 은혜를 입증하시고, 수여하시고 인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인장을 통해 확증되며 확실해진다. 칼빈은 여기에서 표징과 표시되는 실체를 구분한다. 표징은 사물을 가리킨다. 성례전의 실체는 그리스도와와의 교제에 놓여 있다. 그 자체로서 성례전은 아무런 효력을 지니지 못한다. 성례전은 복음의 약속에 의해 존재한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모든 것을 단지 그리스도에게만 기대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도, 우리로 하여금 성찬에 참여하도록 만드시는 분도 바로 그 분이시다. 그는 성례전이 나타내는 바를 충족시키신다. 그는 이 수단을 사용하시되 그 모든 효력이 반드시 성령에게 인정되도록 사용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성례전은 때로는 인장으로 불리워지며 사람은 성례전이 믿음을 먹이고, 강화시키고 촉진시킨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전히 적절한 의미에서 단지 성령만이 인장이라고 불리워진다. 성령은 믿음을 확실히 시작하게 만들고 완성시키는 분이시다.'

성례를 통해서 성령이 행하시는 것은 그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다. 그러나 수단 자체가 결코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다. 성령이 인장이시기 때문에 그는 인치신다. 칼빈은 더 강하게 성례의 의미를 설명 설명하지 않는다. 이와 동시에 그는 이보다 더 나은 방식을 통하여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수는 없었다. 복음의 약속은 인쳐진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니게 하시며 우리를 그 분 안에 확증시키신 성령 자신이 인장에 해당된다.

칼빈의 성례론에서 실제로 모든 것은 그가 말씀, 믿음, 선택과 성화와 관련된 것으로 되돌아간다. 성령과 성례전을 인장으로 언급한 그의 견해는 앞서 언급된

것과 관련된다. 그는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성령의 사역을 언급함에 있어서 항상 말씀,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선택의 은혜의 완성,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에 관해서 말한다. 또한 중재, 즉 말씀에 의한, 그리고 성례전에 의한 구원의 중재를 항상 언급하지만 항상 성령이 그리스도를 지시하고 그 분과의 교제를 이루시는 것에 대하여 말한다. 성령은 구원의 실재가 우리 삶에 전달되는 가장 본래적인 의미에서 인장이므로 성례전은 단지 인장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 관해서 말할 때, 흔히 ‘언약과 세례를 둘러싼 세기의 논쟁’이 가져다 준 결과로 인해 부담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희망을 상실해 버리고 혼란을 야기시킨 것처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칼빈 자신에게 질문이 주어질 수 있다. 이미 오래 전에 진행되었던 논쟁에서 제기되었던 질문의 배경과 관련하여 칼빈을 읽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칼빈의 전선은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으로는 은혜와 구원을 내면화하였던 재세례파가 있으며, 또 다른 편에는 방대한 성례신학을 지닌 로마의 견해가 있다. 칼빈은 두 단어로 양 진영의 주장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그는 스스로 종교개혁 진영 상호간에 벌어진 고집스러운 오해를 불식시켰다. 그는 질문들을 무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단지 현상적으로만,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였지만 급속하게 퍼져 나간 딜레마를 뛰어넘었다. 이런 측면에서 그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을 때 이것이 복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며 그리스도와와의 실제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그의 영과 그의 사역을 위한 것이다. 이 관계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치심을 받는다. 그는 또한 성례전의 사용을 통해서 확신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성례자동주의

(sacramental automatism)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지고 분명해져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향하게 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반드시 확실해져야 한다. 복음의 약속은 설교되며 그 힘은 성령에 의해 주어진다. 성찬은 시행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릴 때 그 열매는 드러나게 된다. 그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자신의 살과 피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신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인치신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성례전의 진리가 우리의 일부분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흔들림 없는 약속의 확실성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참되다고 인치는데 이 약속은 그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슴에 인쳐진 것이다.

개혁신앙칼럼

김성수 | 그리스도인과 대학



칼빈이 설교한 강대상



그리스도인과 대학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와 같은 전인격적이며 총체적인 복음에 순종적으로 응답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을 양육하기 위해서 기독교대학은 필수적이다. 오늘날과 같이 전문화된 사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은 고등교육의 장을 통해서 정교화되어야 하며,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신앙공동체가 기독교대학을 소유하고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대학은 수많은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 외적으로는 교육에 대한 국가 권력의 부당한 통제는 물론, 변화하는 세계의 세속적 문화와 이념의 도전을 받고 있으며, 내적으로는 구성원들의 빈약한 세계관적 기초, 교권의 위협, 그리고 열악한 시설과 재정 문제 등의 시련 앞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I. 기독교대학의 본질

흔히들 기독교대학의 독특성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대학은 신앙의 공동체인

동시에 학문의 공동체라고 한다. 기독교대학이 신앙의 공동체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대학만이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슬람대학이나 불교대학, 그리고 심지어는 일반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공동체이다. 인간은 본질상 종교적인 존재(religious being)이다. 모든 인간은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든지 아니면 거짓된 우상을 경배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다. 문제는 어떠한 신앙이냐는 것이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그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의 공동체이다. 기독교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일반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연구와 교육, 그리고 봉사의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서이다.

II. 기독교대학의 발전 방향

1. 기독교대학은 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인간사회에는 가정, 학교, 교회, 정당 등 여러 사회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가정은 창조질서에 속하는 제도이며, 여타의 모든 제도들은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제도들이다. 이들 제도들은 각각 그 고유한 권위를 가지고 독특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상호지배나 경쟁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모든 제도들이 하나님의 권위아래서 그 자체의 기능을 고유하게 감당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은 대학으로서 존재하면서 그 독특한 과업을 감당해 나가야 하고,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해야 한다. 대학은 그 자체의 고유한 업무에 대해서 국가나 교회, 또는 사회의 기타 여러 기구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합당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나 교회가 아니라 대학이다. 교육은 교회나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것은 교육이 세속적으로 합리적이 되거나 단순히 자율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의 영역으로 하여금 교회적이거나 정치적인 영역과는 확실히 다른 비판적 성찰, 과학적 탐구, 그리고 교육적 책임성을 개현해 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대학의 기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에만 대학은 외부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행사되는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수월성(academic excellence)을 지닌 학문의 공동체(academic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기독교대학은 교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교회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성장해 나가야 한다.

2. 기독교대학은 학문의 종교적 뿌리를 드러내어 비판하고, 학문을 내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 사회의 문화와 대학은 철저하게 세속적이며 인본주의적이다. 대학의 중추적인 활동이 종교적 중립성의 관점에서부터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종교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주변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학

의 실제적인 활동은 그리스도인, 불교,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이 모두 함께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공통의 근거 위에서 만나는 세속적 삶의 영역에 관심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기독교대학이란 일반대학들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교육과정에 몇 가지 기독교적 활동들을 단순히 추가하는 정도의 대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날 북미는 물론 우리 한국에도 소위 복음주의적인 기독교대학과 학문단체들을 상당수 찾아볼 수 있다. 이 모든 대학과 단체들은 거의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 또는 “성경과 과학의 통합”에 대한 헌신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에 사용되는 통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차이가 있다. 다같이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소위 중립적인 과학적 사실(neutral scientific facts)에다가 성경적인 진리를 단순히 추가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기독교적인’ 교육이란 고작 전통적인 세속 학과에다가 필요한 신학 과정이나 성경 공부 과정을 추가하는 정도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세속적 연구의 사실들을 기독교적인 가치로 포장해 주는 정도에서 만족한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대학은 이러한 접근방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독교대학은 소위 “중립적”인 사실(neutral facts)에 기독교적인 가치(Christian values)를 단순히 추가하는 정도에서 만족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접근방법으로서는 참되게 성경적인 학문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대학은 과학적 사실에 성경적인 진리를 단순히 추가한다던가 성경과 과학을 “조화”

(harmonizing)시키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기보다는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 학문을 보는 과학자”(the scientist viewing science through the spectacles of Scripture), 또는 “성경적 관점에서 학문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과학자”(the scientist engaging in scientific activity from a biblical perspective)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더 좋아한다.

학문의 내적, 구조적 개혁을 추구하고, 나아가 창조세계에 대한 참된 이해를 공유하는 것은 기독교적 학문공동체가 감당해야 하는 소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어디까지나 기독교인 과학자가 자신의 학문활동에 있어서 성경적인 원리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이 과업은 계속적인 과업이다. 우리의 학문활동은 계속적으로 기록된 말씀의 개혁적인 빛의 조명을 받아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인 관점(Christian perspective)에서 창조세계의 다양한 구조와 조직을 조명하는 방법을 탐구하는데 지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단순히 일반적인 학문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러한 학과목의 가르침에 기독교적인 과목이나 활동을 추가시키는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이 아니다. 기독교대학은 학문의 종교적 뿌리를 드러내고 학문 자체를 내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을 때에 그 소명과 역할에 신실할 수 있다. 기독교적 헌신의 일반적 분위기가 학습 분위기에 단순히 스며드는 정도로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각 학문을 형성하는 종교적 뿌리에 대한 비판적인 통찰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결코 모든 강의실이 종교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다. 생물학, 심리학, 교육학, 역사학의 가르침을 종교과목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기독교대학은 학

문의 내적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학문의 본질과 구조를 지키면서 학문 자체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3. 기독교대학은 구성원들의 동일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세계관은 인간활동의 근본적 기초이며 방향잡이이다. 세계관의 혼란은 공동체의 통일성과 역동성을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휘파한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실한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카이퍼에 의하면, 기독교대학은 일관되고 통합적인 세계관, 즉 강력한 기독교적 삶의 체계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 이것은 대학의 구성원 모두가 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실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독교대학의 교수진은 반드시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교수들은 학생들과 매일매일 직접적인 접촉을 하며 따라서 학생들에게 기독교적 신앙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수진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철저하게 기독교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실에서 그리고 학문공동체 안의 여타 활동 속에서 교수들은 일관된 기독교적 관점을 견지하고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자신의 전공분야를 기독교적 신앙과 관계 지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아주 미묘한 문제이다. 이것은 기독교신앙의 변증적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전공과목의 특색을 희석시켜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은 경건성과 학문성을 동시에 지녀 기독교적 학문을 할 수 있는 자

라야 한다. 즉 기독교대학의 교수들은 기독교인이면서 학자가 아니라 기독교 학자가 되어야 한다.

만약 교수진이 심오하게 헌신되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기독교대학을 유지해 갈 수 있는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대학은 교수 채용에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확하게 이점에서 많은 희석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교수 임용이 흔히 큰 압력 하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과운영을 위해 즉각적으로 공백을 채워야 할 압박감이 있으며,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압력이 있다. 즉 그 학과의 학문적 위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압력 하에서 운명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해결책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심을 핵심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수 채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러한 일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는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때로는 기독교적 특색을 대가로 치루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수가 없는 당혹감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대학에 있어서 학생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실한 면학과 알찬 신앙적, 인격적 준비를 해야 한다. 대학에서의 공부과정이 단순히 세속적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은 기독교대학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정하신 일생의 과제를 찾도록 힘쓰며 그 찾은 일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직원 역시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학교의 일상생활은 행정직원에게 의해서 영위되며, 또 많은 점에서 행정직원은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정은

반드시 독특하게 기독교적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대학에 종사하는 모든 일반 직원들은 방관적 무관심과 편의주의적 안일성, 또 사무적 냉냉함을 버리고 자신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며 그의 나라가 학문과 교육의 영역에서도 확장되어 감을 확신하면서 헌신적인 봉사와 감사가 있는 성실과 기쁜 마음의 섬김으로 그 과업에 임해야 한다. 만약 행정직원이 기독교적 증거에 실패한다고 하면 대학의 기독교적 특색이 희미해지게 된다.

기독교대학은 또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실한 후원집단(이사회, 교회 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특별히 이사회는 반드시 기독교인들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사회는 대학의 제반 주요 정책들을 결정하고, 교수요원과 행정직원들을 채용하는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의 직분은 학교의 기본적인 종교적 방향(religious direction)을 분명히 하고, 교육적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과 설비들을 공급하며, 학교의 일들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일에 자격을 구비한 자들을 선발하고 임용하는 일이다. 이처럼 중요한 일을 이사회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기독교대학의 이사회는 반드시 기독교세계관에 충실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4. 기독교대학은 세상에 대하여 부정적(negative)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positive)인 자세를 가지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기독교대학은 온실처럼 세상과 여타 다른 교육기관에 만연해 있는 죄와 이단으로부터 젊은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 이념은 창조세계에 대한 탐구와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보다는

교리와 신앙을 주입시키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독교대학은 단순한 반대나 비판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우리의 사회와 문화에 대하여 소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인간의 모든 활동이 본질상 종교적이며 모든 학문 활동이 종교적이라면, 기독교적 학문만이 유별나게 종교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학문은 궁극적으로 종교적인 공약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신앙과 학문을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앙을 수용하여 학문의 기초로 삼느냐 하는 것이다. 즉 신앙과 학문은 언제나 통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기독교대학이 제기해야 하는 유일하게 참된 질문은 어느 신앙을 기초로 삼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종교와 학문(과학)(religion and science) 또는 신앙과 학문(faith and learning)이 아니라 종교 대 종교, 과학 대 과학, 신앙 대 신앙, 학문 대 학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한다.

III. 기독교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몇 가지 기본적 과제

1.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 교육신조(educational confession)와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현장은 특정 개인이나 위원회의 탁상공론적인 추상적 산물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고백적 신념으로 정교화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적인 고백적 관점(educationally confessional stance)은 학문자유의 결과가 아니라 진정한 학문자유의 조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2. 기독교대학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그 프로그램의 발전에 있어서 칼빈(J. Calvin), 바빙크(H. Bavinck), 카이퍼(A. Kuyper), 볼렌호븐(D.H. Th. Vollenhoven), 도예베르트(H. Dooyeweerd) 및 기타 여러 나라의 독특한 기독교적인 사상가들의 정신을 건설적으로 계승해 나가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이들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들의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공헌을 인정하면서 부단한 개혁과 발전을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충실한 구성원(교수, 학생, 직원)을 확보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지배되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진정한 기독교적 학문의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 뿌리를 둔 교수-학습, 그리고 참된 '영성의 옥토', 예컨대 자유, 분별, 희망, 확실성 등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특별히 오늘의 포스트모던 세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4. 기독교대학에는 반드시 '기독교적 가르침'(Teaching Christianly), 연구, 그리고 봉사가 있어야 한다.

5. 기독교대학은 삶의 여타 영역, 예컨대 농업, 기업, 예술, 초중등학교, 노동, 정치, 매스 미디어, 교회생활 등에서의 기독교적 개혁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독교대학은 기독교 공동체 일반에서 순

종적인 규범 실현의 동시성을 기대할 수 있다.

6. 기독교대학의 모든 내적 구조(학문활동, 교수활동, 교육과정, 행정 등)는 창조 실재에 대한 통합적이며 언약적 관점을 내포하고 반영해야 한다.

7. 기독교대학은 그 이상을 실현함에 있어서 국내는 물론 국외의 기독교고등교육기관, 그리고 전 세계의 자매기관들과의 밀접한 협동적 노력을 격려하고 조장해야 한다.

8.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수월성(academic excellence)을 지닌 학문의 공동체(academic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

9. 이러한 종류의 기독교대학은 교회지도자와 신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명시적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기독교고등교육기관 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대학과 성경학교, 또는 신학교는 분리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구별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또한 기독교대학이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권주의의 위험을 부단히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다.

IV. 맺는 말

인본주의적이며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21세기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대학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표명하면서 기독교대학이 감당해야 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학문의 공동체이다. 기독교대학의 역사를 보면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독교신앙이라는 확고한 기초를 상실해 버리거나 아니면 학문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린 경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대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렵다. 기독교대학은 기독교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기독교신앙은 삶 포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독교신앙은 주일 하루 또는 인간 삶의 어느 한 영역에만 관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신앙은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고 방향 지우며 동기 지우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기독교대학은 이러한 기독교적 신앙을 그 확고한 기초로 삼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기독교대학은 대학으로서의 학문적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독교대학은 인적, 물적 자원 면에서 많은 것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독교대학은 다른 어떠한 대학들보다도 더 낡지는 않다고 할지라도 그에 버금가는 좋은 시설과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기독교대학의 모습을 상기할 때 항상 열악한 시설 환경 속에서 협의적이고 도그마적인 의미의 경건을 강조하는 소리만이 연상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대학을 발전시켜나가되 언제나 독특한 기독교신앙을 바탕으로 학문적 탁월성을 드러내는 학문의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서 평 Book Review

김진영 | 오토 베버, 칼빈의 교회관

황대우 | 빔 안스, Albrecht Hardenberg as Theologian

유명복 | 리처드 윈터, 지친 완벽주의를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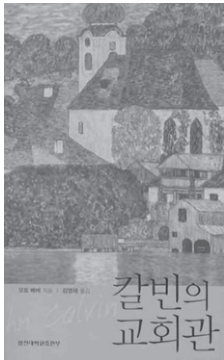
칼빈이 설교한 강대상



Book Review

『칼빈의 교회관』

오토 베버, 김영재 역, 수원: 합동신학대학원, 2008.



“칼빈의 교회관”의 저자인 오토 베버 교수는 “칼빈 연구가의 한 사람으로 괴팅겐 대학의 신학 교수로 있으면서 개혁주의 교회와 신학에 공헌을 한 신학자”였으며 “이론 신학보다 교회사와 실제의 교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신학자”였다. 이 책은 오토 베버 교수의 사후에 그의 제자들이 편집 출판한 오토 베버 교수의 논문집 중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간 존재의 계속”(Die

Treue Gottes und die Konitunitat der Menschlichen Existenz)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제 II권을 김영재 교수가 번역한 것이다. 책의 제목을 원제목과 달리 “칼빈의 교회관”으로 한 것에 대해 김영재 교수는 “칼빈의 교회관”이라는 제목이 오토 베버가 쓴 글들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바른 교회를 추구하는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필요와 욕구에 더 부합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토 베버 교수의 칼빈의 교회론의 특징이 “칼빈의 실제 목회와 역사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역사적 배경과 상관관계를 밝히면서” 이해하려고 했다는 역자의 지적

은 이 책을 읽을 때 언제나 마음에 두고 읽을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네 개의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1장 “교회의 형성자 요한 칼빈”(프랑크푸르트의 칼빈 기념일의 강연). 2장 “칼빈의 교회관”(1966년 2월 프린스턴 신학교의 워필드 강좌 때 강연, 이 책의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교회의 기초, 참된 교회의 징표, 교회의 직분, 신정국, 하나의 교회, 성례, 신자의 나라 등을 다루고 있다). 3장 “교회의 하나님에 관한 칼빈의 견해”(1959년 Calvin-studien에 발표한 논문). 4장 “1561년 교회 헌법에 명시된 교회와 국가의 권한”(1964년 스트라스부르 대학의 칼빈 연구회의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개의 논문들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발표한 별개의 논문들이기에 내용상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 책의 네 개의 논문을 다 읽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면, 2장 “칼빈의 교회관”을 숙독하면 다른 논문들도 함께 이해하는 유익이 있을 것이다.

오토 베버 교수가 설명한 칼빈의 교회관의 특징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다음의 몇 가지 특징들에 주목하여 살펴보겠다.

첫째로 올바른 교회관 정립에 있어서 성경의 중요성이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성경의 중요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참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참 교회의 표지들은 무엇이며, 참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질문이다. 성경은 참 교회를 위한 샘플과 같은 보고이며 구체적 지침들로 가득 차 있는데, 칼빈의 교회론에도 동일하다. 한 가지 예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통해 로마 카톨릭 교회와 분리했을 때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회의 하나됨과 보편성”을 분리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였다. 칼빈은 종교개혁자들의 분리가 교회의 하나됨과 보편성으로부터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순수하고 참된 교회

의 회복임을 성경의 권위와 가르침을 근거로 변론하였다: “그것을 어떻게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병사들이 자기 위치를 이탈했을 경우에, 어느 누가 군기를 높이 쳐들고 각자는 자기 위치로 되돌아오라고 소리친다면 그것을 분리 운동이라고 하겠습니까? ... 내가 주님의 교회의 하나 됨을 위하여 애를 쓰지만(교회를) 하나로 묶는 띠는 오직 주님의 진리임을 잘 압니다.” 올바른 교회, 참 교회의 근거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통이나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진리”인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며 오직 성경의 진리에 부합되는 교회만이 참 교회임을 주장한다. 교회에 있어서 성경의 중요성과 권위로 단순히 교회의 본질에 관한 이해뿐 아니라, 참 교회의 징표들, 교회의 직분자들의 임명과 직분자들의 구체적인 임무와 활동나타세례와 성찬의 올바른 집행, 교회 권징에 대한 시정부와 당회의 역할표들책임 등의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이며 권위 있는 표준과 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칼빈의 교회관을 통해 오토 베버는 성경적 가르침의 권위가 칼빈의 모든 교회에 대한 이해의 근거에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로 교회가 처한 역사적인 상황과 현실에 근거한 교회관의 정립이다. 오토 베버는 칼빈이 제네바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완전한 교회관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오히려 칼빈의 교회관은 목회를 하면서, 16세기의 역사적 상황과 제네바라는 구체적인 현실적 환경 속에서 정립하여 갔음을 지적한다. 먼저 오토 베버는 칼빈이 처음 제네바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그리고 최소한 1541년 교회 헌법을 내기 전에는 목사(*pastores*), 교사(*doctores*), 장로(*presbyteri*), 집사(*diaconi*)의 네 직분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

다고 지적한다. 칼빈이 네 직분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된 것은 처음 제네바에서 추방되어 스트라스부르에 있을 때였으며, 1538년 마틴 부셔가 출판한 “진정한 목회”를 통해 배웠을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네 직분의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도 16세기의 역사적 상황과 제네바 시라는 독특한 현실 안에서 정립해 나갔다. 예를 들어 권징의 경우, 권징은 교회의 권위에 속하는 것이지만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는 시의회의 권한에 속한 문제였다. 교회의 치리가 시의회로부터 침해를 받아서도 안되지만, 로마 카톨릭의 막강한 교권 하에서 고통을 받은 시의회로서는 권징을 목사들과 당회에 넘기기에는 많은 우려와 반발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과 구체적 현실 속에서 칼빈은 교회의 일과 시의회의 일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교회의 권징을 확보하기 보다는, 교회와 정부의 영역이 서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밀접히 얽혀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정부와 교회가 함께 신정(神政)을 이루어가는 방향을 취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현실에서는 출교권이 교회에 있지 않고 영주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더러 있었는데 칼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역사적 상황과 현실의 기반 위에서 교회를 세워나갔다. 현실적 상황과 형편을 무시한 교회론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은 개혁이기보다 혁명이며, 목회적이기 보다 이데올로기적이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상황과 현실적 한계들을 인식하면서도 참 교회의 모습을 부단히 추구했다는 점이다.

셋째로 양 극단을 지양하는 중립의 태도다. 오토 베버는 칼빈의 교회관을 설명하면서 양 극단을 피하는 중립의 길을 걷는 것을 칼빈의 특징으로 언급하는데, 성찬논쟁과 교회의 치리권에 대한 칼빈의 태도를 지적한다: (성찬논쟁에 있어서) “이 시점에서 칼빈은 츠빙글리의 신령주의(Spiritualism)와 루터교의 본

체론 사이에서 중재자로 역할한 것처럼 보인다.”(교회의 치리권 문제에서) “첫째로 치리권을 순전히 성직자의 손에 맡김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치리의 신성화(Sakralisierung)를 반대하는 한편, 둘째로는 치리권을 시 당국에 맡겼을 경우 생겨나게 마련인 치리의 세속화(Sakularisierung)에 반대했다. 칼빈은 이미 애기한 대로 중간노선을 택했다. 치리권은 성찬에 초대를 받은 교회에 있고 장로들의 손에 있다는 것이다.” 칼빈이 중간노선을 택하고 중립의 입장에서 중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칼빈의 중간노선 혹은 중립의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절충의 길 혹은 타협의 길, 곧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타협의 길을 걸었다는 뜻이 아니다. 오토 베버가 지적하는 중간노선 혹은 중립의 입장을 취했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서 극단적으로 나간 양 극단을 지양하고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길을 찾고자 했다는 의미에서 중간노선 혹은 중립의 입장을 취했다는 말이다. 즉 성경의 가르침과 무관한, 무조건 양 극단의 중간에 선다는 의미의 중간노선, 중립의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 아니다. 서로 반대되는 두가지 입장의 중간에 선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진리가 아닌 두 개를 절충한다고 해서 진리가 되지는 않는다. 성찬이나 교회의 치리권에 대해 칼빈이 취한 중간노선과 중립의 입장은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입장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중간노선이며 중립의 입장이다. 중간노선에서도 성경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역자인 김영재 교수는 서문에서 1980년대 한국교회의 양극단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지나치게 의식하여 한국적인 교회로 탈바꿈을 지향하고 토착화를 인위적으로 서두르는 신학자들이나, 이를 반대하고 순수한 복음과 정통 교리를 고수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교회의 자연적인 한국화를 의

식하지 못하고 목회적인 차원이란 명분으로 신자의 종교심에 영합함으로써 무의식중에 교회의 변질을 재촉하는 목회자들이나, 양자가 다 교회의 역사성과 전통에 대하여서는 무관심한 것 같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양 극단에 해당되는 모습은 옷을 바꾸어 입을 뿐 동일한 문제로 나타난다. 우리 시대에도 옷을 바꾸어 입었을 뿐이지 양극단에 해당되는 주장들과 흐름이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진리와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로 서는 것인데,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한 교회로 서는 것이 칼빈이 추구한 중간노선, 중간 입장에 서는 것이다.

사족 같은 이야기지만, 성찬논쟁에서 칼빈이 양극단 중의 하나로 언급한 쾰빙글리의 성찬에 관한 오토 베버의 이해는 문제가 있다. 쾰빙글리의 성찬에 대한 이해를 단순한 “기념설”(Memorialism)로 이해하는 것은 합당한 이해가 아니다. 쾰빙글리의 신학적 사상은 계속해서 발전하는데, 성찬에 관한 쾰빙글리의 이해 역시 신학적 발전과정을 거친다. 쾰빙글리의 초기 성찬에 관한 이해는 분명히 기념설적인 이해였지만, 후기로 갈수록 쾰빙글리의 성찬의 이해는 영적 임재설로 발전하여 칼빈의 견해와 거의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게 된다. 칼빈신학대학원에서 유학 중 종교개혁사를 가르쳤던 리차드 멀리(Richard Muller)나 리차드 갬블(Richard Gamble) 교수 등은 쾰빙글리의 성찬론이 단순한 기념설로 생각하지 않는다. 쾰빙글리의 성찬에 관한 이해는 그의 원서들을 통해 다시 규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칼빈의 교회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과 개혁교회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해 가는 교회(Ecclesia reformata est semper reformanda) 라는 말이 있다. 개혁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다. 성경을 적당히 알고 적당한 수준에서 배우고 적용하는 것으로는 언제나 개혁해가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언제나 개혁해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적당히 알고 적당히 적용하고 순종해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교회는 결코 언제나 개혁하는 교회가 될 수 없다. 언제나 개혁해 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칼빈의 교회론을 읽다보면 개혁교회의 비전과 열쇠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단순한 진리에 있음을 새삼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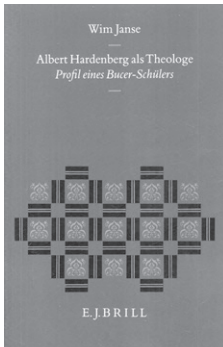
짧은 분량으로 오토 베버 교수의 칼빈의 교회론을 충분히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비록 네 편의 적은 논문이지만, 이 논문들에는 여기서 언급하지 못한 종교개혁에 관한 많은 지식과 정보와 함께 칼빈의 인격과 그의 교회관에 관한 수많은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칼빈의 교회관에 관심을 가진 사람 뿐 아니라 우리 시대에 바른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열심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열린 마음과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독을 권하고 싶다. 칼빈의 교회론을 이해하는 가장 좋고 바람직한 방법은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의 저서들을 직접 읽는 것이다. 그러나 칼빈의 원서들을 더욱 풍성하게 읽기 위한 길잡이와 자극제로서 오토 베버의 칼빈의 교회관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아직 접해보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다시금 일독을 권한다.



Book Review

『Albert Hardenberg als Theologe. Profil einen Bucer-Schülers.』

Wim Janse. Leiden: E. J. Brill, 1994.



빔 얀스(Wim Janse)는 네덜란드 레이든(Leiden) 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자유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세계칼빈학회 회원이자 칼빈 저술 전집의 비평편집관 편집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특히 독일어로 작성된 그의 학위 논문 『신학자로서의 알베르트 하르텐베르크: 한 사람의 부씨 제자에 대한 인물평』(*Albert Hardenberg als Theologe. Profil eines Bucer-Schülers*)은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출판사 브릴(E. J. Brill)에서 1994년에 “기독교 사상사 연구”(Studies in the History of Christian Thought)라는 시리즈 57권으로 출간되었다. 이 논문의 지도교수는 네덜란드 기독교개혁교단 신학대학교 교회사 교수였던 빌름 판 엇 스페이커르(Willem van't Spijker) 박사이며 그에게서 박사학위를 받은 제자들 가운데 최고의 성적인 쿼 라우테(Cum laude) 성적을 받은 논문은 유일하게 이것뿐이다.

현재 세계칼빈학회의 젊은 회장인 셀더르하위스(Selderhuis) 교수도 판 엇 스페이커르 교수에게서 우수한 논문을 썼지만 그와 같은 성적을 받지는 못했다. 스페이커르 교수의 한국 제자도 두 명 있는데 장신 측의 최윤배 박사와 고신 측의 황대우 박사가 그들이다. 얀스 박사의 학위논문을 지도한 부지도교수는 세계칼빈학회를 조직하고 은퇴할 때까지 회장으로 봉사한 독일 뮌스터(Münster) 대학교의 교회사 교수 빌헬름 노이저(Wilhelm Neuser) 박사이다. 빔 얀스는 2007년에 아시아칼빈학회의 주강사로 초빙되어 칼빈의 성례론을 주제로 강의했고 그 해에 한국 고신대학교에서도 두 편의 논문, 즉 칼빈과 루터주의자 요아킴 베스트팔(Joachim Westphal) 사이의 유아세례 논쟁을 다룬 논문과 베스트팔의 성례론을 다룬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빔 얀스의 책은 브레멘(Bremen)과 엠덴(Emden)의 종교개혁자 하르던베르크를 연구한 학위논문이다. 하르던베르크는 네덜란드 오벌레이של(Overijssel) 주에 속한 암트-하르던베르크(Ambt-Hardenberg) 지역의 레이즈(Rheeze)라는 마을에서 약 1510년에 태어났다. 1527년부터 약 1530년 사이에, 그리고 1540년부터 약 1542년 사이에 아듀아르트(Aduard)에 있는 시토(Citeaux = Cistercian) 수도회 수도사로 생활했다. 1530년경에 루뱅(Louvain)에서 문학과 신학을 공부했고, 1539년에는 마인츠(Mainz)에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543년에는 비텐베르크(Wittenberg)에서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다. 1544년에는 쾰른(Köln)의 대주교 헤르만 폰 비트(Hermann von Wied)의 신학 자문관 역할을 맡기도 했고 1547년에는 쉬말칼트(Schmalkald) 전쟁에서 군목 사역을 하기도 했다. 1547-1561년 사이에는 브레멘에서, 1564년 말 혹은 1565년 초에서 1567년 사이에는 쟁바덴(Sengwarden. 오늘날에는 빌헬름스하펜

(Wilhelmshaven)에 해당함)에서, 그리고 1567-1574년 사이에는 엠덴에서 목사로 사역했다. 1547년에 흐로닝언(Groningen)에 있는 버헤인수녀회(begijn) 소속 수녀 트라우치 세이싱어(Truytje Syssinge)와 결혼했으며 1574년 엠덴에서 생을 마감했다. 하르던베르크는 마인츠에서 공부할 때부터 존 아 라스코(John á Lasco)를 알게 되었고 아 라스코와 필립 멜랑흐톤(Philip Melanchthon) 등의 권유로 1542년 내지 1543년에 수도회를 떠남으로써 로마 교회와 절교하게 되었다. 이후 멜랑흐톤에게서 공부한 다음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셔(Martin Bucer)의 소개로 쾰른의 종교개혁을 도왔다. 그가 부셔의 라틴어 저술 2개를 번역한 이후로는 부셔의 추종자로 간주되었다.

얀스의 학위논문은 삼중적인 접근 방법, 즉 하르던베르크의 생애를 다룬 역사적 접근, 그의 신학을 다룬 교리적 접근,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신학과 그의 신학을 비교 연구한 교리사적 접근을 통해 하르던베르크의 신학을 연구한 것이다. 이 논문의 우수성은 하르던베르크의 모든 종교개혁 활동뿐만 아니라 50개가 넘는 그의 저술과 340통의 편지까지 샅샅이 조사함으로써 몰트만(Jürgen Moltmann) 이후 정설로 여겨져 오던, 하르던베르크가 비텐베르크의 종교개혁자 멜랑흐톤의 제자 내지는 숨겨진 칼빈주의자(Krypto-Calvinist)라는 주장을 뒤집어엮고 그가 마르틴 부셔의 제자라고 결론 내린 점이다. 특별히 이런 결론을 내린 결정적인 근거로 얀스 박사는 종교개혁 당시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가장 첨예한 대립과 논쟁을 불러일으킨 성찬론을 든다. 즉 하르던베르크의 성찬론은 다른 어떤 개혁자의 그것보다 부셔의 성찬론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얀스는 브레멘의 개혁자가 개혁적 성향의 인문주의자들에게서 영향

을 받아 철학적인 주석을 했고 급진주의를 반대했으며, 그의 은혜 교리는 멜랑흐톤에게서, 구원의 보편성 교리는 츠빙글리(Zwingli)에게서, 예정론과 재세례파에 대한 견해는 불링거(Bullinger)에게서, 성령론은 칼빈에게서 각각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얀스는 하르던베르크의 신학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그를 부씨의 제자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얀스 논문의 결론을 요약한 것이다.

하르던베르크는 멜랑흐톤의 영향권에 들어 있는 친구이긴 했지만 그의 수구적 자세에 대해서는 혹평하기도 했다. 하르던베르크가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 변형 해설서에서 말하는 멜랑흐톤의 칭의론과 성령론에 동의하는 것은 그 자신의 성령론적 현현을 강조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고, 또한 믿음이 필수적이며 영적으로 임재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하르던베르크는 멜랑흐톤의 제자에서 칼빈주의로, 그리고 독일 개혁 교단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의미하는 숨겨진 칼빈주의(Krypto-calvinismus)도, 소위 “두 번째 종교개혁”(zweiten Reformation)이라는 운동의 핵심인물도 아니다. 즉 몰트만(Moltmann)은 하르던베르크를 멜랑흐톤의 제자로서 멜랑흐톤의 후기 모습에서 칼빈주의 개혁교단으로 넘어간 인물로 보지만 사실은 반대로 하르던베르크가 멜랑흐톤에게 영향을 주어 결국에는 그의 성찬론 뿐만 아니라 성찬기독론(Abendmahls Christologie)에 개혁주의적인 개념뿐만 입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1960년에 멜랑흐톤은 그의 성찬론에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과 영적 임재를 받아들이고, 1557년에 “칼빈적인 초월”(Extra Calvinisticum) 개념을 받아들였다. 멜랑흐톤의 성찬기독론에서 수용된 개혁주의적인 요소를 “칼빈적 초월”이라는 용어 보다는 오히려 “하르던베르크적인 것”

(Hardenbergianum)이라는 용어로 정의하는 것이 더 낫다. 명백한 사실은 하르던베르크가 멜랑흐톤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성찬론에서 반-순수루터주의적 입장(anti-gnesiolutherischen Stellungnahme)으로 돌아서도록 만든 인물이라는 점이다.

하르던베르크는 결코 루터주의 신앙고백과 개혁주의 신앙고백 사이의 연속성에 대해 논하지 않고 오히려 가능한 많이 루터에게 호소하는데, 즉 부씨의 스타일에서처럼 일치신조 해설에 나타난 루터에게 호소한다. 몰트만은 루터가 하르던베르크에게 이질적이어서야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불가사의이다.

하르던베르크가 멜랑흐톤의 제자가 아니라면 베셀 한스포르트(Wessel Gansfort)와 에라스무스(Erasmus)에 의해 그의 성찬론에 각인된 스위스 종교개혁의 인문주의적 추종자도 아니다. 하르던베르크가 인문주의자라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근대적 경건”(Devotio moderna)이라는 그룹에서 가르쳐진 인문주의적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가 인문주의자인 하지만 그의 성찬론은 에라스무스의 것도 베셀의 것도 아니다. 베셀의 영성화(Spiritualisierung)가 하르던베르크에게 어거스틴 전통에 대한 눈을 뜨도록 해 주었고 에라스무스가 그를 교부의 원전으로 안내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 견해 사이의 차이점은 영성주의(Spiritualismus)와 성령론(Pneumatologie) 사이의 차이, 즉 정신인 것(geistig)과 영적인 것(geistlich)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도록 해 주었을 것이다.

하르던베르크는 멜랑흐톤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또한 츠빙글리(Zwingli)나 불링거(Bullinger)의 제자도 아니다. 하르던베르크가 취리히(Zürich)와 깊은 관

계를 유지했으며 신지식과 선택된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그의 견해를 츠빙글리에게서 빌려오고 그의 예정론과 그의 신학적인 세레론 논박을 불링거에게서 빌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학의 심장에 해당하는 성찬론에서는 그런 영향을 찾아 볼 수 없다. 상징적 도구주의(*ein symbolischer Instrumentalismus*)는 하르던베르크를 츠빙글리의 상징적 기념설(*der symbolische Memorialismus*)과도 불링거의 상징적 수평설(*der symbolische Parallelismus*)과도 대립시킨다. 선물의 성격이 선행한다. 즉 성령의 사역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substantia*)의 나타남(*exhibitio*)과 참여(*participatio*)가 기념(*recordatio*)과 봉인(*obsignatio*)의 자리를 대신하는데, 불링거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 본질적으로 나타나고 참여한다는 개념을 거부한다. “영과 혼과 몸”에 예수의 본질적인 육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하르던베르크의 교리에 “영성주의적”(*spiritualistisch*)이라는 형용사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러한 성령에 의해 나타난다(*pneumatologisch-exhibitive*)는 하르던베르크의 성찬 이해는 불링거에게 영향을 받은 아 라스코(a Lasco)의 성찬론과 처음부터 다른 것이었다.

하르던베르크가 비텐베르크와 취리히 사이의 중도를 걸어난 칼빈과 같은 인물로 보는 견해는 교리사적인 뉘앙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르던베르크가 1548년에 작성한 자신의 브레멘 성찬고백서 초판에서 칼빈이 연합을 위해 쓴 소논문 “거룩한 성찬에 관한 소논문”(*Petit traité de la sainte cene*)으로부터 주요부분을 빌어온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칼빈의 제자는 아니다. 이런 현저한 표절은 영적인 친밀성(*Geistesverwandtschaft*)을 나타내는 것이지, 다른 접촉이나 언급이나 회상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스승과

제자의 관계(Meister-Schüler-Verhältnis)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몰트만 이후 통상 하르던베르크를 숨겨진 칼빈주의로 분류해 온 것은 하르던베르크의 교리 개념이 가진 비루터적인 특성이 거의 “숨겨진”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1555년의 법적인 보호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그 대성당 설교자는 결코 자신의 견해를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에 동의하는 것으로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 속에 칼빈주의적인 사상을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숨겨진 칼빈주의자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르던베르크의 대적자 티만(Timann)이 그를 교회연합에 친근한 신학자들, 즉 멜랑흐톤, 브렌츠(Brenz), 부썬, 무스쿨루스(Musculus)와 함께 분류했는데 이러한 분류는 근거 있는 심사숙고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하르던베르크를 당대의 어떤 책략가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하르던베르크는 숨기는 일을 좋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그 자신의 무기를 가진 실행자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다.

하르던베르크가 부썬에게 호소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가 부썬의 가장 덜 정치책략적인 권위를 사용하려고 노력한 것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계속해서 부썬에게 의존했다. 그는 부썬의 번역자로서 1544년 가을에 스트라스부르에서 가진 긴밀한 만남과 그 이후의 짧은 관계를 통해 라인강 지역에서 부썬의 대표자와 종교 정치적 전진기지로, 비텐베르크와 취리히 사이의 중재자로, 그리고 온전히 부썬의 추종 신학자로 성장했던 것이다. 하르던베르크가 부썬의 여러 저술들을 통해 부썬의 성령론적인 성찬관을 매우 공개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언급한 것을 사실이다. 이것은 스트라스부르 개혁자의 신학과 내적인 친밀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부썬 신학과의 이런 내적 친밀성은 비단 하르던베르크의 성찬론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다. 브레멘 개혁자가 부

씨의 저술 가운데 “요약적 개념”(Summarischer vergriff)을 1556년에 낫은 독일지방(서북쪽 독일과 여기에 근접한 네덜란드 지역) 언어인 니덜도이취(niederdeutsch)로 번역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성찬론 문단이 브레멘 성찬론 논쟁의 기폭제로 작용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썌 신학과의 긴밀성은 하르던베르크의 신학 전반에 걸친 개념에서도 표현된다. 특히 계시와 삼위일체에 관한 그의 견해와 기독교론 일부에 대한 견해, 그리고 믿음과 행위, 칭의와 성화, 및 율법과 실천적 삼단론법(syllogismus practicus)을 포함한 구원론에 대한 견해,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에 대한 견해,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직분과 치리를 다루는 교회론과 성례론과 세례에 대한 견해에서 두드러진다. 부썌와 마찬가지로 하르던베르크 역시 자신의 신학의 근본적인 출발점을 어거스틴주의(Augustinismus)에서 찾았으며 외적인 수단에 적극적인 가치를 부여했고 성령론을 강조했다.

하르던베르크의 신학적 독립성은 결혼과 정부 권력의 합법성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브렌츠의 무소부재 개념(Ubiquitätsbegriff, 역주: 부활하신 그리스도 몸은 하늘과 땅 세상 곳곳 어디든지 계실 수 있다는 루터주의적 성찬론에 나타나는 기독교론)에 반대하여 세운 성찬기독교론에서 잘 나타나는데, 여기서 그는 고대교회의 기독교론과 스콜라적 기독교론을 독립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칼빈주의적 초월”(Extra Calvinisticum, 안스가 이것보다 더 선호하는 개념은 “하르던베르크적”(Hardenbergianum)이라는 용어다.) 개념을 발전시켰다. 브레멘과 그 외 독일 북부 지역의 루터주의에 문제를 제기하도록 각성시킨 사람은 멜랑흐톤이 아니라 하르던베르크였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과 각성이 독일 개혁 교회의 형성을 가속화시켰던 것이다.



Book Review

『지친 완벽주의를 위하여』 (Perfecting Ourselves to Death)

리처드 윈터(Richard Winter) / 김동규 옮김 / 2007년 / IVP / 279페이지



완벽주의가 심리학의 한 주제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나, 완벽하고자하는 인간의 바람은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것도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되고자하는 바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완벽하다는 것은 개인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이상적인 상태이며 추구해야 할 미덕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결코 완벽해 질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완벽에 매달려 있는 완벽주의는 교만이며, 스스로를 피곤하게하고 병들게 한다는 점이다. 스탠포드대학의 번즈(David Burns)박사는 미국 인구의 절반정도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말이 근거가 있다면

우리 인구의 절반정도도 아마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본서(本書) 『지친 완벽주의를 위하여』는 완벽주의의 원인과 증상 등 완벽주의 이면에 있는 여러 요인과 심리를 분석하고, 완벽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을 위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완벽주의를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저자 리처드 윈터(Richard Winter)는 심리치료사로 미국 커버넌트(Covenant) 신학교에서 현재 기독교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완벽주의에 시달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독교적으로 조명하여 본서를 저술하였으나, 비기독교인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완벽하다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그것을 성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취지향적이고 외적인 것에 몰두하는 완벽주의 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서는 총 4부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연구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지만 기술적이고 딱딱한, 읽기에 버거운 학술서가 아니라 적절한 예들을 삽입하여 이해를 돕고, 매 장 끝에는 토의문제를 두어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저자는 완벽주의를 건강한 완벽주의와 해로운 완벽주의로 구분하고 해로운 완벽주의의 모습을 명쾌하게 그려내며 완벽주의를 일으키는 원인을 사회문화적, 심리적, 영적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탐색한 후, 가혹한 완벽함이 아닌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참된 온전함을 향해 가는 길을 제시한다.

윈터교수에 따르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광고가 완벽에 대한 무의식적인 환상과 꿈을 자극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현재 모습과 소유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더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완벽한 몸매, 완벽한 옷, 완벽한 가

정, 완벽한 집, 완벽한 직장 등 우리 삶에서 훌륭하고 멋진 것을 추구한다. 특히 잡지나 TV광고에 나오는 세상의 많은 외적인 기준들이 우리를 힘겹게 한다. 오직 똑똑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들만이 인정받고 보상받는 세상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나 도덕적인 성품 때문이라기보다 그의 외모나 간판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른 사람의 인정과 존경을 받기위해 우리는 기를 쓰고 일류대학에 가기 원하며, 아름다워지기 위해 한국은 지금 성형 중이다.

윈터교수는 완벽주의를 건강한 완벽주의와 신경증적인 완벽주의로 나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완벽주의는 보통 활력과 열정으로 가득하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부정적인 요인보다 성취욕구라는 긍정적인 요소에 동기부여가 된다. 그들은 노력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며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지 못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그것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이런 건강한 완벽주의는 장려하여야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경증적이고 해로운 완벽주의는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을 세우며, 이들이 생각하는 자기 가치는 스스로 세운 목표를 얼마나 성취하고 이루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들은 실수에 대한 지나친 걱정, 끊임없는 자기비판,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흑백논리에 빠진다. 우리의 자기 가치감이나 자존감이 그러한 높은 기준을 성취하는 것에 달려 있을 때 그 결과는 패배감뿐이다. 그러므로 해로운 완벽주의는 우울, 불안, 지연행동, 거식증, 자살성향, 강박장애 등을 일으킨다. 이런 신경증적인 완벽주의는 자신이 세우거나 사회가 부과하는 비현실적인 기준 앞에서 늘 시달리고 지쳐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높은 기준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하며 관계가 깨어지곤 한다.

저자는 완벽주의의 근원은 부분적으로는 타고나고 부분적으로는 학습을 통해 생겨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완벽주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적인 요소, 가족이 보여주는 기대와 선례, 문화적 압력, 오랜 세월에 걸친 수치스러운 경험이나 학대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뿌리를 갖고 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지나친 기대를 품고 있는 완벽주의 부모는 관계를 맺거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종종 자녀들 또한 완벽주의자가 되도록 가르친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이 세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에게 실망하기도 하는데, 그런 실망과 비하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실상은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 때문이고 자신은 완전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밖에는 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며 이는 자기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사실 남보다 더 뛰어나려는 열망을 암시한다. 우리는 자신이 유한하며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나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어떤 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고자하는 갈망, 혹은 우리가 반드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갈망, 즉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경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셨다(마 5:48). 일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 세상에서 완벽에 이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실제로 완전함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다. 윈터교수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실 때 사용하신 동사의 시제는 미래형으로,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의 목적이며 지금 당장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능력이나 외모가 아니라 인격적인 성숙과 관련해서 완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 진정한 완벽함이

란 그리스도의 성품을 기르는데 있다. 만일 우리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자기중심성 또는 교만 때문에 탁월함을 추구한다면 성숙과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동원해 할 수 있는 최고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완전한 것일까? 그 이면에는 이기적인 우리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능력의 탁월함이 아니다.

윈터교수는 끝으로 완벽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불완전함으로 더불어 살 것을 강조한다. 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불완전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만일 우리를 창조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면 문제의 핵심은 다른 사람들 심지어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점이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정체성이 아니라 주어진 정체성이 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완벽주의 이미지와 이상들 속에서 자신의 가장 깊은 정체성을 발견하려는 문화의 압력에 저항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는 용기, 완벽에 미치지 못할 수 있는 용기, 내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불완전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스스로 완벽해 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완벽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더 온전해 지기를 위해서 노력은 하되,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는 그대로를 용납하며 인정하는 성숙함이 요구된다. 신경증적이고 해로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온전해 질 것을 추구하는 모든 이에게 본서는 길잡이의 역할을 할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 ① 칼빈과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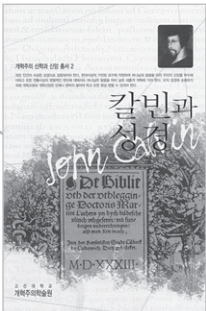


개혁주의자들이 요구한 교회개혁의 핵심은 항상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개혁의 표준은 상황이 아니라 성경이며 개혁의 태도는 창조가 아니라 회개이다. 종교개혁이란 새로운 것의 창조와 확립이 아니라 성경적인 옛것의 갱신과 재확립이다. 루터가 95개 조항의 선언문을 회개의 요청과 더불어 시작한 것은 회개 즉 성경적 신앙의 회복이야말로 교회갱신의 진정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 물질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 은밀히 기획되어진 오늘 교회안의 온갖 인위적인 조작은 결국 교회를 갱신하기 보다는 오히려 훼손할 뿐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세상의 영을 따르는 세상의 지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편 | 2007 | 10,000원〉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 ② 칼빈과 성경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말씀의 진리 안에서 모든 악한 타협을 거부하기 위해 보수주의자보다 더 보수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오직 성경으로”의 길, 즉 보다 더 철저하게 성경적이 되는 길 뿐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들은 말씀의 표준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변해서 회개해야 하고 또한 너무 변하지 않아서 회개해야 한다. ...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개혁의 시대적 사명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표준과 충족한 근거임을 새롭게 다짐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편 | 2008 | 10,000원〉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 ③ 칼빈과 사회



칼빈의 신학과 사상을 5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현재 시제로 말할 수 있느냐? ... 칼빈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계 14:6)에 철저하게 복종하여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수백 년 전이었을지라도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관계들 속에서 그 자신의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의 실제적인 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었다. ... 따라서 그러한 칼빈의 신학과 사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현실 적합성을 가진 진리 체계로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으며 우리 시대와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햇불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 편 | 2009 | 10,000원〉

개혁주의학술원 소식



+ 제 4회 종교개혁기념 학술세미나

제 4회 종교개혁기념 학술세미나가 “칼빈의 영성”라는 주제로 권호덕 교수(백석대)와 이승구 교수(합신대)를 강사로 모시고 고신대학교 비전관 4401 세미나실에서 개최합니다.

- 강의제목 :
- 일시 : 2009년 10월 30일(금)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 제 1회 고신학술대회

제 1회 고신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본 학술대회를 통해 급변하는 현대 신학과 사상을 개혁주의의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고, 한국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고신의 개혁주의 신학과 사상의 사명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술대회를 계기로 개혁주의 학문 창달을 위한 “고신 개혁주의 학회”(가칭)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학술대회 및 활동을 전개하며, 한국과 세계 각 처에서 봉사하는 고신 교회 출신 학자들 간의 학문적 교류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개 교회의 소속 또는 출신 교수 및 학자들의 현황을 파악하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제 2차 『개혁신앙 아카데미』 개설 교회 모집

제2차 개혁신앙 아카데미의 개설을 희망하는 교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개혁신앙 아카데미는 개혁주의 교회를 표방하면서도 개혁주의 신앙의 역사와 원리를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한 우리 교회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이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개혁주의 전반에 대한 전문교육을 대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09년 3월부터 아카데미 개설을 요청한 교회를 중심으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아카데미의 주제와 강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상규 교수)

“개혁주의 교회의 신앙은 무엇인가?” (이환봉 교수)

“개혁주의 교회의 세계관은 무엇인가?” (전광식 교수)

“개혁주의 교회의 문화관은 무엇인가?” (이신열 교수)

“개혁주의 교회의 교육관은 무엇인가?” (김성수 총장)

“개혁주의 교회의 국가관은 무엇인가?” (황대우 박사)

운영 방식은 지역교회의 요청을 따라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매주(주일 오후) 1주제 또는 2주제 단위로 연속 6주간 또는 3주간에 걸쳐 강사들이 차례로 강의합니다. 주일 오후에 시간은 해당 교회와의 사전 협의에 의하여 지역교회에 적합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협력을 받아 학생을 모집하되 주로 제직과 교사 훈련 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면 유익할 것입니다. 모든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고신대학교 학술원의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개혁신앙아카데미는 매학기에 교회 별로 시작될 예정이며 항상 사전에 신청하여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1차 개혁신앙아카데미를 수료한 학생 수는 총 391명이며, 참여한 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민족교회(최정철 목사), 사직동교회(김철봉 목사),

창원한빛교회(윤희구 목사), 하동지역교회연합(고남교회당, 조기영목사),

마산교회(원대연 목사), 성도교회(박래영 목사), 마산동광교회(박해형 목사).

현재 제 2차 개혁신앙아카데미를 신청한 교회는 안양일심, 안락제일, 거창, 용호남교회입니다.

+ 학술세미나 시리즈 출판 예정

학술세미나 시리즈 ① 칼빈과 성례 : 빔 얀스 지음 (이신열 옮김)



» 저자 서문 중

칼빈의 성례론은 아주 많이 오해되어 왔다. 그의 성례론은 직접적이며, 잘 정돈되고, 고정된 교리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기독교강요> 제 4권 14-19장에 잘 나타나 있다. 이는 발전을 거듭했으며 성례에 관한 이러한 칼빈의 유연성은 투쟁에 있어서 위치, 토론 대상, 교우관계, 그리고 교회 정치적 입장 변화라는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칼빈의 성례론을 비역사적으로 읽는 것은 단순화와 잘못된 전달의 위험에 봉착하도록 만든다. 이 책에 편집된 4편의 에세이는 역사적 상황에 정초한 가운데 칼빈 성례론의 발전 과정에 관한 분명한 해설과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 2009년 9월 7일,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연구실에서, 빔 얀스

추천사

주도홍 교수 (백석대학교) **추천** _ 칼빈의 성찬론을 역사적 원전으로부터 잘 소개하고 있는 빔 얀스(Wim Janse) 박사의 글은 희소가치가 높으며,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성례이해에 있어 바른 길과 깊이를 더해 줄 것을 확신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최윤배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한국칼빈학회 회장) **추천** _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본서를 기꺼이 그리고 힘껏 추천하는 바입니다. 첫째, 빔 얀스 박사는 중진학자로서 네덜란드는 물론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셋별과 같은 탁월한 신학적 재능을 가진 동시에 돈독한 종교개혁 신앙을 가진 학자입니다. 둘째, 본서는 탁월한 연구 결과와 중요한 최신 제 1차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탁월한 이

신열 교수님께서 번역, 편집 등 전체를 맡아 책임적인 편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규 교수 (고신대) **추천** _ 빔 얀스 교수의 칼빈의 성례론에 대한 작품을 출판하게 된 것은 한국교회를 위한 값진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성례(찬) 이해가 루터파와 개혁파의 분리를 가져왔을 만큼 심각한 문제였고, 개혁자들 간에도 이견을 보였던 주제였다는 점에서 얀스 교수의 이 책은 한국교회에 많은 가르침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총서 제 4집 「칼빈과 영성」출판

총서 제 4집 「칼빈과 영성」은 다양한 국내외 칼빈 학자들의 우수한 논문들로 편집되어 12월 중에 출판될 예정이며 연구논문의 제목과 집필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약의 영성 (신득일 교수)
- 신약의 영성 (채영삼 교수)
- 16세기 영성 (라은성 교수)
- 영성과 성경해석 (안명준 교수)
- 그리스도의 영적체험 (문병호 교수)
- 영성과 성화 (이신열 교수)
- 영성과 기도 (권호덕 교수)
- 영성 훈련 (김순성 교수)
- 영성과 설교 (류응렬 교수)
- 칼빈의 종말론적 영성 (황대우 교수)

+ 영어저널(English Journal) 발간 계획 「Journal of Korean Reformed Theology」

「Journal of Korean Reformed Theology」이라는 영어저널(English Journal)을 정기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본 학술원은 한국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훌륭한 논문들을 해외에 널리 소개함으로써 세계 개혁 신학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개혁주의학술원 홈페이지 확대 개편

참빛교회(김윤하 목사)의 후원으로 개혁주의학술원 홈페이지를 대폭적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기존 홈페이지의 도안과 구성을 새롭게 편성하고 더 많은 개혁주의 연구 자료들을 추가하였으며 현재의 웹주소(<http://www.kirs.kr>)와 더불어 한글주소(<http://개혁주의.kr>)를 통한 접속도 가능하다.



웹주소 <http://www.kirs.kr>

웹 한글주소 <http://개혁주의.kr>



개혁주의학술원 후원교회

고신대학교 개혁주의학술원을 위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세계적인 최상의 연구기반 형성과 학술연구 활동을 약속합니다.

2009. 6. 현재 / 총 55교회 / 가나다 순

가음정교회	대저제일교회	부산범천교회	용호중앙교회	포도원교회
거제교회	동부산교회	부산복교회	울산동일교회	포항대흥교회
거창교회	동산교회	부산비전교회	진교회	한밭교회
경주교회	동상교회	부산서면교회	제4영도교회	한울교회
광명교회	동향교회	부암제일교회	진부동부교회	화명제일교회
광주은광교회	등촌교회	사직동교회	참빛교회	활천제일교회
광주은성교회	마산교회	삼일교회	창원교회	향성교회
김해중앙교회	마산삼일교회	삼한교회	창원은광교회	(가나다순)
남천교회	매일교회	서문로교회	창원한길교회	
대구동교회	명덕교회	성도교회	창원한빛교회	
대구서광교회	모든민족교회	성안교회	초장동교회	
대양교회	부산동교회	성은교회	총무제일교회	

무통장 입금 및 자동이체 계좌 • 농협 485-01-032852 (예금주 : 고신대개혁주의학술원)

Korean Institute for Reformed Studies

● www.kirs.kr

